

<2027년 수능 대비>

# 2027 수능 특강 세계사 중요 개념 빈칸 정리

목표를 향해서 ...



[ \_\_\_\_\_ ]님의 꿈과 목표를 응원합니다!!

# I 3 문명의 발생과 4대 문명

## 01. 문명

<b>문명의 발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사용, 농경 생산력 향상, 인구 증가</li> <li>• 큰 강가 유역에서 관개 농업 발달 : 치수를 위한 노동력 필요 → 계급 분화, ②□□ 사용</li> <li>• 지배자의 권력 강화와 도시 국가 형성</li> </ul>
---------------	---

## 02.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b>메소포타미아 문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전 3,500년 경</li> <li>•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li> <li>• 이민족의 침입 빈번, 왕조의 잦은 교체(⑥□□□ → 아카드 → ④□□□ → 히타이트)</li> <li>• 정치 : 신정(신권) 정치</li> <li>• 종교 : ⑤□□□ 다신교(⑥□□□□ □□□)</li> <li>• 문화 : ⑦□□□□ 건설, ⑧□□ 문자(점토판), ⑨□□진법과 □□□, 점성술 발달</li> <li>• 바빌로니아 왕국 : ⑩□□□□ 법전 편찬</li> </ul>
<b>이집트 문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전 3,000년 경</li> <li>• ⑪□□□ 유역 : 강의 주기적 범람으로 땅이 비옥</li> <li>• 폐쇄적인 지형 특성으로 오랫동안 통일 왕국 지속[고왕국(멤피스) → 중왕국(테베) → 신왕국(아마르나)]</li> <li>• 정치 : ⑫□□□의 신정(신왕) 정치</li> <li>• 종교 : ⑬□□□ 다신교(미라, ⑭□□□ □)</li> <li>• 문화 :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건설, 상형 문자를 ⑮□□□□에 기록, ⑯□□진법과 □□□, 기하학과 측량술 발달</li> </ul>

## 03.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

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제 무기와 전차를 이용한 정복 활동</li> <li>• 바빌로니아 왕국 멸망, 철기 문화를 서아시아에 전파</li> </ul>
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중해와 흑해를 무대로 해상무역 주도</li> <li>• 카르타고 등 해상 식민 도시 건설</li> <li>• 표음 문자 사용 : 그리스에 전해져 알파벳의 기원이 됨</li> </ul>
<b>헤브라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라엘 왕국 : 솔로몬 왕 때 전성기 → 솔로몬 왕 사후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li> <li>• ⑲□□□ 숭배 사상과 유대교의 발전 : 크리스토폴로, 이슬람교에 영향</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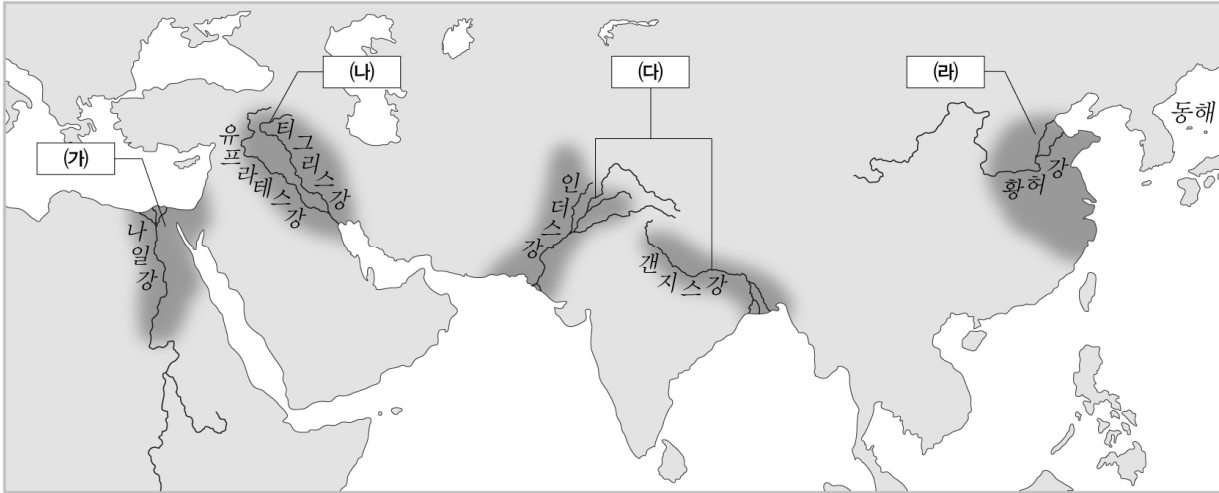
## 04. 인도 문명

<b>인더스 문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전 2,500년 경</li> <li>• 인더스강 유역, 드라비다인 건설 추정</li> <li>• ⑳□□□□와 □□□□□□ 유적 : 계획도시 건설(포장도로, 배수 시설, 공중목욕탕, 광장, 창고 등을 갖춘)</li> <li>• 상형 문자, ㉑□□ 사용, 해상무역 종사(일찍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역)</li> </ul>
<b>아리아인의 이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 경로 : 기원전 1,500년 경 펀자브 지방 → 기원전 1,000년 경 갠지스강 유역까지 진출</li> <li>• ㉒□□□□ 확립 : 엄격한 신분 제도(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li> <li>• 브라만교의 창시 : ㉓□□ 제작(자연에 관한 찬양과 제사 의식 정리)</li> </ul>

05. 중국 문명

<b>하 왕조</b>	• 청동기, 기록상 최초의 왕조, 얼리티우 유적
<b>상 왕조</b>	• 기원전 1,600년 경 황허강 중류에서 성립 • 제정일치의 신정(신권) 정치, 은허 유적, ㉔□□□, 태음력
<b>주 왕조</b>	• 기원전 1,046년경 상을 무너뜨리고 호경(鎬京, 산시성 시안 부근)에 도읍 • ㉕□□□ 실시 : 왕이 직할지를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친족과 공신에게 봉토를 분배하여 통치 • 천명사상과 덕치 강조, 종법(혈연적 질서)과 예법 중시, 경제(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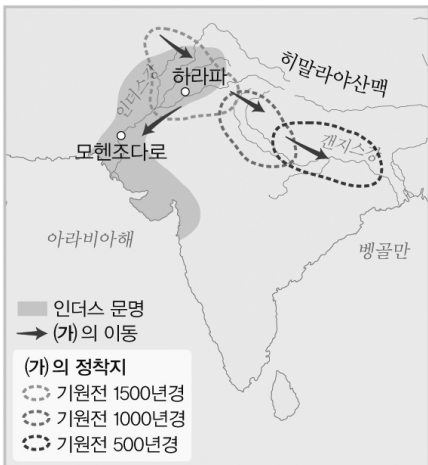
4대 문명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



(가)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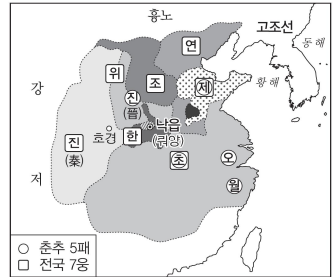


# II 1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1 춘추 전국 시대

### 01. 성립과 전개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周) 왕실과 제후들 간의 혈연적 유대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 제후들의 세력 강화 → 기원전 8세기경 ㉠□□의 침입으로 호경(시안)에서 ㉡□□(뤄양)으로 천도(동주 성립), 이후 진(秦)이 통일할 때까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름</li> </ul>
<b>전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춘추 시대(기원전 770~기원전 4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齊), 진(晉), 초(楚), 오(吳), 월(越) 등 춘추 5패가 “주 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세력 확대, 다른 제후국 통제</li> </ul> </li> <li>전국 시대(기원전 403~기원전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추 5패 중 진(晉)의 제후국이었던 조(趙), 위(魏), 한(韓)이 독립하여 진(秦), 연(燕), 초(楚), 제(齊)와 전국 7웅을 형성</li> <li>: 패권을 다투는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 전개[합종연횡(合縱連衡)]</li> </ul> </li> </ul>



### 02. 사회 변화

<b>정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국은 영토 국가로 발전, 점차 ㉣□□□를 통한 지방 통제 강화</li> </ul>
<b>경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구와 우경(牛耕) 보급 → 토지 개간 활발, 농업 생산량 증가, 토지 사유화 진전</li> <li>제철업·직물업 등 수공업과 상업 발달, 화폐 유통(㉥□□·포전 등)</li> </ul>
<b>사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농민 가족이 사회의 기초 단위로 정착</li> <li>㉦□□ 무기 사용에 따른 전쟁 양상 변화(귀족 세력의 전차 중심 → 보병과 기병 중심), 전쟁에 참여한 일반 백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li> </ul>

### 03. 학문과 사상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제후국들이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면서 사(士) 계층의 성장 →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諸子百家))의 등장</li> </ul>
<b>유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자에 의해 형성(맹자, 순자로 계승), 가족 윤리 강조, 인·예를 중심으로 한 도덕 정치 주장</li> </ul>
<b>도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자·장자에 의해 형성, 무위자연 주장</li> </ul>
<b>묵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묵자가 대표적, 차별 없는 사랑(겸애) 주장, 검소한 생활 강조</li> </ul>
<b>법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비자 등, 군주의 권위 존중, 법률에 따른 엄격한 통치 주장</li> </ul>

## 2 통일 왕조 진(秦)

<b>전국 시대 통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원전 4세기경 ㉩□□을 등용하여 ㉪□□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 추진 → 국력 증대 → 6국을 정복하여 통일 완수(기원전 221), 수도 함양(咸陽)</li> </ul>
<b>진시황제의 정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 집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시행(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관리 파견), 화폐(→ ㉬□□□)·도량형·문자·수레바퀴의 폭 등 통일, ㉭□□□□ 단행</li> </ul> </li> <li>영토 확장 : 홍노 축출 후 ㉮□□□□ 축조, ㉯□□ 지역까지 영토 확대</li> </ul>
<b>멸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혹한 통치와 대규모 토목 공사 실시 → 백성의 불만 고조 → 진시황제 사후(기원전 210) ㉰□□·□□의 난 등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멸망(기원전 206)</li> </ul>

### 3 한(漢)

#### 01. 건국과 발전

<b>중국 재통일</b>	• 진 멸망 이후 유방(한 고조)이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재통일(기원전 202), ㉠□□에 도움
<b>고조</b>	• ㉡□□□ 실시(군현제와 봉건제 절충), ㉢□□와 화친하고 물자 제공
<b>무제</b>	• 중앙 집권 강화 : 군현 확대, ㉣□□□의 건의에 따라 유교 통치 이념 확립(유교의 관학화, 태학·오경박사 설치 등) • 대외 팽창 : ㉤□□을 대월지에 파견, 흉노 축출, 남월(남비엣)·고조선 정복 • 경제 안정 : 잦은 대외 원정 등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 → 소금과 철의 ㉥□□□, 오수전 주조·유통, 균수법과 평준법 시행
<b>신(8~23)</b>	• 한 무제 사후 외척과 환관 세력 대두 → 외척 안한공(安漢公) ㉦□□이 전한을 멸망시킨 후 건국 • 왕토 사상에 따른 토지 국유화와 노비 매매 금지 등 실시 → 호족들의 반발
<b>후한</b>	• 성립 : 유수(광무제)가 ㉧□□에 도움(호족의 지원), 전한의 부흥 추구, 유교 장려 • 멸망(220) : 환관과 외척, 관료들의 세력 다툼, 대토지를 소유한 호족의 횡포 심화 → ㉨□□□의 난을 비롯한 농민 반란 발생 → 후한 멸망, 위·촉·오 삼국으로 분열

#### 02. 사회 모습

<b>경제</b>	• 철제 농기구의 보급 확대, 농업 기술 발달 → 농업 생산력 증대
<b>사회</b>	• 토지의 사유화 진전 → 호족 성장(대토지 소유, ㉩□□□□□를 통해 관료로 진출)

#### 03.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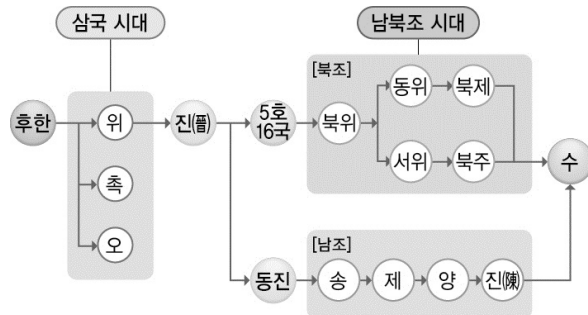
<b>사상과 종교</b>	• 유교 : 유가 사상이 황제와 국가 권력을 옹호하는 통치 이념화, ㉪□□□(경전 해석, 주석 추가) 발달 • 불교 : 비단길(사막길) 등을 통해 전래 • 기타 : 신선 사상과 민간 신앙, 도가 사상이 결합하여 태평도·오두미도 등으로 발전 → 후한 말 농민 반란에 영향
<b>역사 편찬</b>	• 사마천의 ㉫『□□』(전설 시대에서 한 무제 때까지의 역사), 반고의 『한서』(전한의 역사) → ㉬□□□ 방식으로 서술(중국 정사 서술의 모범)
㉭□□□	• 후한 때 채운(채륜)의 개량 → 학문과 사상의 발전 촉진



# III 1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4 위진 남북조 시대

### 01. 형성

삼국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한 멸망 후 위(220)·촉(221)·오(229) 성립 → 위가 촉을 병합(263)한 이후 국호를 진(晉)으로 변경(265) → 진이 다시 중국 통일(280)</li> </ul>
5호 16국 시대와 동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호(흉노, 갈, ❶□□, 저, 강의 북방 민족)가 화북 지역에 여러 국가 건국 → 진 황실이 창장강 이남의 ❷□□(난징)에서 동진 건국(317)</li> </ul> <p>무제가 쇠약해진 위로부터 선양을 받은 뒤 영토를 넓히고 오를 병합하니, 그 위세와 경력이 천하에 펼쳐졌다.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혜제가 덕을 잃어 원제가 남쪽으로 천도하였다. 중원은 흉도(凶徒)가 활거하고 여러 고을이 함락되었다. 그러자 조정의 교화가 미치는 곳은 겨우 창장강 이남 지역뿐이었다.</p>
남북조 시대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❸□□(선비족)의 화북 지역 통일(439)</li> <li>효문제 때 ❹□□ 천도 및 ❺□□ 정책 추진 → 선비어·선비족 복장 금지, 한족 문화 수용, 선비족과 한족의 혼인 장려 등 ❻□□ □□ 표방</li> </ul> </li> <li>남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착민과 이주민의 대립, 빈번한 왕조 교체(동진 → 송 → 제 → 양 → 진), 북조에 밀려 영토 축소</li> </ul> </li> </ul> 

### 02. 사회와 경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❷□□□□ 실시 : 향촌의 인재를 선발 → 점차 능력보다 가문 중시</li> </ul> <p>중정관이 자기 지역의 인물을 9등급으로 평가하여 추천하면 중앙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등용하는 제도이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 시행되었으며,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가 폐지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❸□□ □□의 성장 : 대토지를 소유한 유력 호족이 ❹□□□□□를 통해 중앙의 고위직 독점</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❺□□ 개발 본격화 : 창장강 유역 개발 → ❻□□의 경제력 향상, 남조의 인구 증가</li> <li>북위의 ❼□□□ 실시 : 자영농 육성 목적 → 수·당으로 계승</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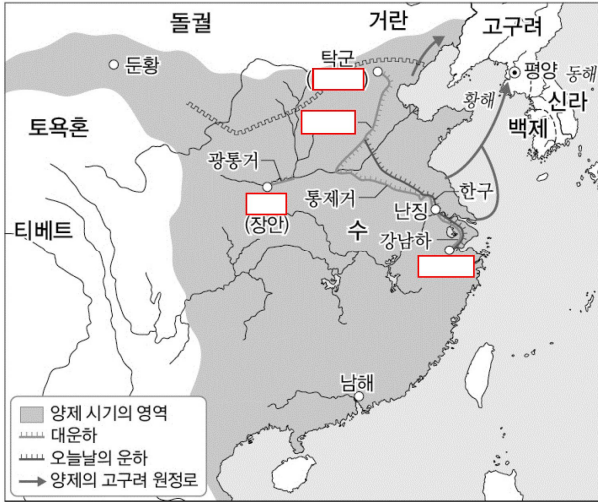
### 03. 문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조 : 유목민의 문화와 한족 문화가 융합,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 존중</li> <li>남조 : 귀족 중심의 문화 발달(왕희지의 서예, 고개지의 &lt;여사잡도&gt;), 노장사상과 ❶□□ 사상 유행(위진 시대 죽림칠현이 대표적), 지식인들의 현실 도피적 풍조 확산 → ❷「□□□□」(도연명) 등에 반영,</li> </ul>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조 황실의 후원으로 발전, 대규모 ❸□□ 사원 조성(원강, 룡면 등), 불경의 한자 번역</li> <li>동진의 승려 법현 → 인도의 굽타 왕조 순례, 『불국기』 저술(416)</li> <li>태평도, 오두미도가 도가 사상과 결합하여 도교로 발전, 교단 형성 → 황실 수용, 민간에서도 유행</li> </ul>

## 5 수의 성립과 발전

<b>성립</b>	• 581년 북주의 양견(문제)이 수를 세운 후 남조의 진(陳)을 멸망시키고 남북조 통일(589)	
<b>발전</b>	<b>문제</b>	• 9품중정제 폐지 → ④□□□ 실시(587) • 균전제·조용조·부병제 정비(국가 재정 안정, 군사력 강화), 운하 광통거 설치(584)
	<b>양제</b>	• 운하 통제거·한구·영제거·강남하 등 설치 → 대운하 건설(610, 탁군~⑤□□□, 남북 간 물자 유통 활성화 및 경제 통합 강화) • 대외 진출(돌궐, ⑥□□□ 등 공격)
<b>멸망</b>	• 대규모 토목 공사, 전쟁 등으로 백성 반발 고조 → 각지의 반란으로 멸망(618)	

### ● 수의 영역과 대운하



## 6 당의 발전

### 01. 건국과 발전

<b>건국</b>	• 이연(고조)이 ⑦□□을 수도로 삼고 수립(618)	
<b>발전</b>	<b>태종</b>	• ⑧□□□ 정복, 율령 체제 정비 등 → 정치적 변영('정관의 치')
	<b>고종</b>	• 서돌궐 정복,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킴
	<b>현종</b>	• 경제 발전 등 변영('개원의 치') → 후기에 균전제, 부병제 동요 등 사회·경제 혼란 발생

### 02. 쇠퇴와 멸망

<b>쇠퇴</b>	• 돌궐, 토번, 위구르 등 주변 유목 민족의 위협 • 현종 때 ⑩□□□ □(755~763) 이후 ⑪□□□의 독자적 세력 강화 → 중앙 정부의 통치력 약화, 장원의 확대 → ⑫□□□ □(875~884) 등으로 급격히 쇠퇴
<b>멸망</b>	• ⑬□□□ ⑭□□□에게 멸망(907) → ⑮□□ □□ 시대 전개(907~979)

### 03. 통치 체제

<b>특징</b>	• ⑯□□ 체제의 완성 →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
<b>통치 제도</b>	• 3성 6부(중앙)와 주현제(지방)
<b>농민 지배</b>	•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 8세기경 균전제 붕괴, 모병제 시행, ⑰□□□ □ 이후 ⑱□□□ 실시(780)
<b>대외 정책</b>	• 정복 지역에 ⑲□□□·도독부 설치,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미(굴레·고삐) 정책 실시



## II 2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 1 송의 발전(960~1126~1127~1279)

#### 01. 건국과 발전

<p><b>건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대 10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조광윤(태조)이 건국(960), 수도 ①□□□(개봉)</li> </ul> <p>당의 멸망 이후 화북을 지배한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를 5대라 하고, 이 시기 그 주변에 건국한 국가들을 10국이라 하였다. 후주에 이어 건국한 송이 이러한 분열을 수습하고 통일을 이루었다.</p>
<p>②□□□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주의 채택(절도사 권한 약화, 황제가 군사권 장악, 문관 우대)</li> <li>재상 권한 축소, 과거제 개편(④□□ 정례화)</li> <li>한계</li> <li>: 관료 수 증가, 국방력 약화, 북방 민족 국가들의 압박 → 거란(요)과 ⑤□□에 세폐(은, 비단 등) 제공 → 재정 부담 증가</li> </ul>
<p>⑥□□□의 신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난 극복, 부국강병 도모, 민생 안정 추구 → 보수파 관료와 대지주의 반대로 실패 → 신법당과 구법당의 당쟁 격화</li> </ul>
<p>남송의 수립과 멸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의 침입으로 화북 지역 상실 → 고종(조구), 남송 수립(1127), ⑧□□(항저우) 도읍</li> <li>강남 개발로 경제 안정 → 몽골(원) ⑨□□□□ 칸에 멸망(1279)</li> </ul>

#### 02. 경제

<p><b>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⑩□□ 경제력이 화북 지역 능가, 도시의 번영</li> </ul>
<p><b>농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 개간 활발, 새로운 농기구(용골차 등) 보급, 모내기법 보편화, ⑪□□□ 도입</li> <li>창장강 ⑫□□ 지역이 최대의 곡창 지대로 발전, 지주 전호제의 확산</li> </ul>
<p><b>수공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⑬□□ 사용 확산, 제철·자기·견직업 등 발달</li> </ul>
<p><b>상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업 조합 ⑭□(상인)·□(수공업자) 결성</li> <li>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화폐 유통 증가(일본에 동전 수출) → ⑮□□·회자 등 지폐 유통</li> <li>해상 무역 발달(주요 무역항에 ⑯□□□ 확대 설치)</li> </ul>

#### 03. 사회와 문화

<p><b>사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제 강화, 교육 기관 증가 등으로 ⑰□□□ 성장(지주층, 유학적 소양)</li> </ul>
<p><b>문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문</li> <li>: 주희가 성리학 집대성(대의명분과 화이론 중시), 역사서 편찬(사마광의 『자치통감』 등)</li> <li>서민 문화</li> <li>: 카이펑(⑱□□□의 「청명상하도」), 항저우 등 대도시에 오락 시설 증가, 공연 성행, ⑲□□·통속 문학 유행, 서민들의 일상생활 반영(맹원로의 『동경몽화록』)</li> <li>과학 기술</li> <li>: 인쇄술 발달(지식 보급과 문화 발전에 기여), 화약 무기 개발, 나침반 사용(원양 항해 활발) → ⑳□□ 제국 시기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전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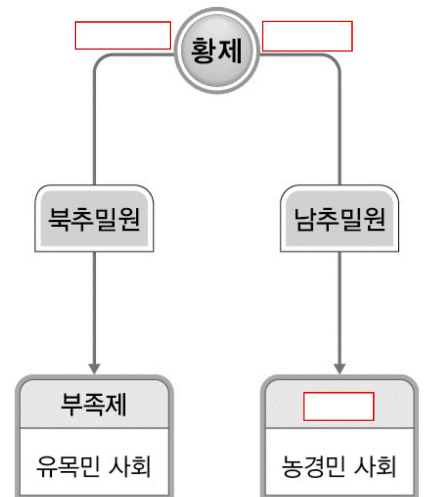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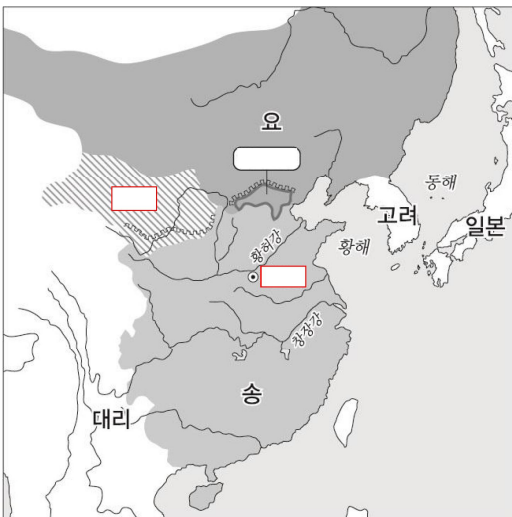
2 북방 민족 국가의 대두

01. 거란(요, 916~1125)

<b>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가 건국(916) → 발해 정복(926) → ②□□ 16주 차지(936) → 송과 화친(전연의 망약)</li> </ul> <p>거란(요)이 석경당이 후당을 무너뜨리고 후진을 건국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받은 만리장성 이남의 16주를 말한다.</p> <p>다이고 천황 연장 8년 4월에 배구 등이 동란국의 사신이라 칭하며 왔다. 뒤에 천황이 사신을 보내면서 묻기를 “본래 발해국인데 어찌하여 동란국의 사신이라고 칭하는가.”라고 하자, 배구 등이 대답하기를 “발해는 거란에게 멸망을 당하여 이름이 동란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신 등은 현재 항복하여 동란국의 신하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p>
<b>통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 실시(유목민과 농경민을 이원적 지배)</li> </ul>
<b>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 문자 사용(전통문화 유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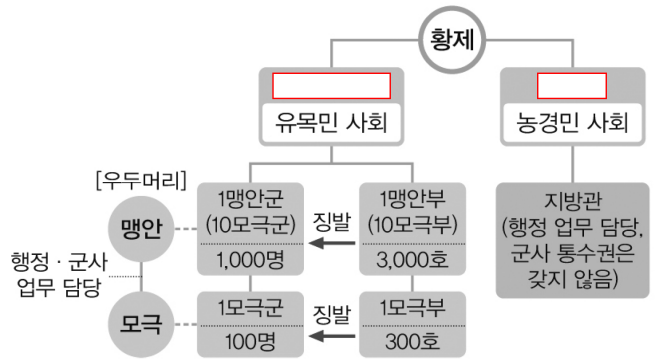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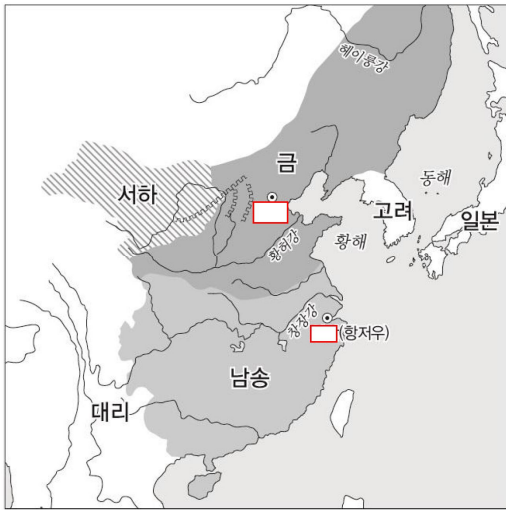
02. 서하(1038~1227)

<b>건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④□□□족 이원호가 건국(1038)</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 교역로 ⑤□□□ 장악</li> </ul>
<b>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 문자 사용</li> </ul>



03. 금(여진, 1115~1234)

<b>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구다가 건국(1115) → 송과 연합하여 거란(요)을 공격한 후 정복 → 송의 수도인 ⑥□□□을 함락하고 송 황제 생포(정강의 변, 1126) → ⑦□□(베이징) 천도(화북 지역 지배, 1153) → 카이펑 천도</li> </ul>
<b>통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진족 등은 ⑧□□ □□□, 한족 등은 ⑨□□□로 통치</li> </ul>
<b>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 문자 사용</li> </ul>



### 3 몽골 제국의 발전

#### 01. 수립과 쇠퇴

<b>수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06년 테무친(ᠡᠦᠨᠦᠨᠠᠳᠤ 칸)이 몽골족을 통일하고 몽골 제국 건설</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ᠡᠦᠨᠦᠨᠠᠳᠤ 칸(재위 1206~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ᠡᠦᠨᠦᠨᠠᠳᠤ를 토대로 정복 전쟁 전개, 서하-금 공격,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 후손들이 유라시아에 걸친 대제국 건설</li> <li>: 사후 울루스의 느슨한 연합체 형성</li> </ul> </li> <li>몽케 칸(재위 1251~12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훌라구의 서역 원정 → 아바스 왕조 정복(1258)</li> </ul> </li> <li>ᠡᠦᠨᠦᠨᠠᠳᠤ 칸(재위 1260~12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ᠡᠦᠨᠦᠨᠠᠳᠤ(베이징) 천도, 국호를 원(元)으로 결정, ᠡᠦᠨᠦᠨᠠᠳᠤ 정복, 두 차례의 일본(가마쿠라 막부) 원정 추진</li> </ul> </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쿠빌라이 칸 사후 황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 격화, 황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낭비로 재정 악화</li> <li>과중한 세금 징수, ᠡᠦᠨᠦᠨᠠᠳᠤ 남발, 물가 폭등</li> <li>백련교도를 중심으로 ᠡᠦᠨᠦᠨᠠᠳᠤ의 난 발생 → 주원장(명 태조)에 의해 만리장성 이복으로 축출됨(1368)</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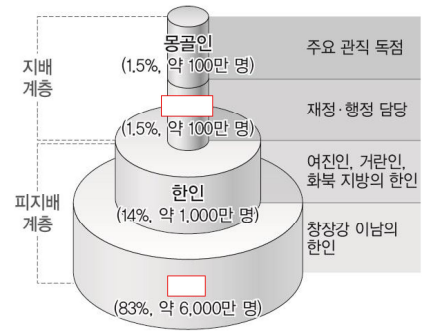
#### 02. 중국 지배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식 통치 제도 활용, ᠡᠦᠨᠦᠨᠠᠳᠤ 표방(몽골인이 고위 관직 독점)</li> </ul>
<b>계층 구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배층 : 몽골인과 ᠡᠦᠨᠦᠨᠠᠳᠤ(주로 재정 업무 담당)</li> <li>피지배층 : 한인(금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 등), ᠡᠦᠨᠦᠨᠠᠳᠤ(남송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 등)</li> </ul>

#### 03. 경제와 문화

<b>경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생산력 발전, 면직업 발달(ᠡᠦᠨᠦᠨᠠᠳᠤ 재배 확대)</li> <li>상업의 발전, 대운하 정비(항저우와 대도 연결), ᠡᠦᠨᠦᠨᠠᠳᠤ(지폐)의 통용</li> <li>활발한 동서 교류 전개(초원길, 비단길 안정적 운영), ᠡᠦᠨᠦᠨᠠᠳᠤ을 통해 지배력 강화, 해상 무역 번성(이슬람 상인 왕래) → 인적·물적 이동 활발</li> </ul>
<b>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민 문화 : ᠡᠦᠨᠦᠨᠠᠳᠤ(희곡) 유행(『서상기』 등)</li> <li>각 민족의 종교·문화에 대한 관용 정책, 티베트 불교(ᠡᠦᠨᠦᠨᠠᠳᠤ)의 유행과 국교화, 파스파 문자 사용</li> <li>ᠡᠦᠨᠦᠨᠠᠳᠤ 문화 유입으로 천문학, 역법(ᠡᠦᠨᠦᠨᠠᠳᠤ 편찬), 자연 과학 등 발달</li> <li>동서 원거리 여행 활발 → 마르코 폴로, ᠡᠦᠨᠦᠨᠠᠳᠤ, 카르피니 교황 사절 등 방문</li> </ul>

● 몽골(원) 제국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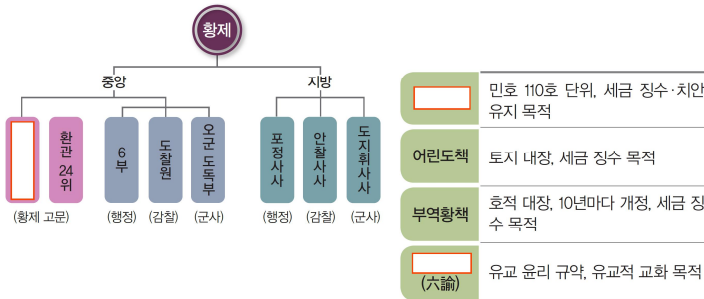


# II 3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 1 명의 건국과 발전(1368~1644)

### 01. 건국과 체제 정비

<b>건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원장(홍무제)이 ①□□에 도읍하여 수립(1368), 몽골을 북으로 몰아내고 한족 왕조 부활</li> </ul>
<b>체제 정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무제(재위 1368~1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 폐지(6부 직접 통솔) → 황제권 강화</li> <li>: 학교 설립, 과거제 정비, ③□□ 반포 → 한족 문화 부흥 정책</li> <li>: 어린도책(토지 대장)·부역황책(호적 대장 겸 조세 대장) 정비</li> <li>: 조세 징수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④□□□ 실시</li> </ul> </li> <li>• ⑤□□□(재위 1402~1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난의 변을 통해 황제 즉위, 내각 대학사 설치, 자금성 건설 이후 ⑥□□□ 천도</li> <li>: 몽골 원정, 베트남 공격, 정화의 함대 파견</li> </ul> </li> </ul>



▲ 명대의 통치 체제 정비



▲ 정화의 항해

### 02. 쇠퇴와 멸망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관의 득세로 정치 혼란 심화, ⑦□□□(북방의 몽골과 동남 해안의 왜구)의 침입 → 16세기 후반 ⑧□□□의 개혁(일조편법 확대 실시 등) → 임진왜란 참전, 후금(청)과의 전쟁 등으로 재정난 심화</li> </ul>
<b>멸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한 세금 징수 등으로 농민 봉기 발생 → ⑨□□□의 농민군이 베이징 점령(1644)</li> </ul>

## 2 청의 성립과 발전

### 01. 성립과 발전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르하치(재위 1616~1626) : ⑩□□□를 바탕으로 여진 통합 → 후금 건국(1616)</li> <li>• ⑪□□□(재위 1626~1636~1643) : (내)몽골 공격, 국호를 청으로 변경, 조선 공격</li> <li>• ⑫□□□(재위 1643~1661) : 베이징 점령(1644)</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조 ⑬□□□(재위 1661~1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고일제(千古一帝), 삼번의 난(1673~1681) 진압, 타이완의 반청 세력 진압(1661~1683)</li> <li>: 러시아와 ⑭□□□□ 조약 체결(1689), 외몽골 청해(淸海)를 번속(藩屬)으로 삼음</li> </ul> </li> <li>• 세종 옹정제(재위 1722~17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면제왕(冷面帝王), ⑮□□□ 설치(정책 결정권을 황제에게 집중, 1732)</li> <li>: 러시아와 카흐타 조약 체결(1727)</li> </ul> </li> <li>• 고종 ⑯□□□(재위 1735~17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십전노인(十全老人), 티베트·신장·몽골 등 정복(최대 영토 확보)</li> </ul> </li> </ul>



▲ 청의 최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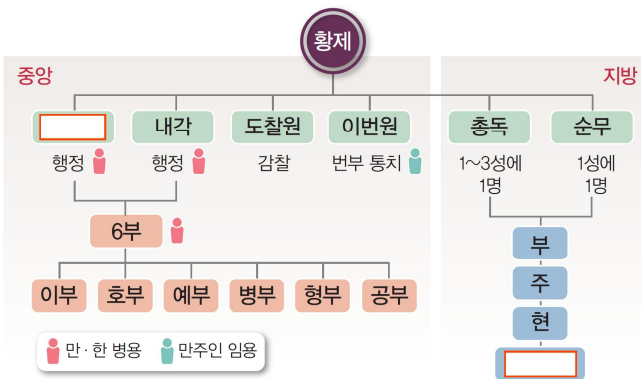


▲ 중국의 주요 소수 민족

02. 지배 정책

<b>강경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 □□□과 호복(胡服) 강요, 사상 탄압(금서 지정, 18 □□□)</li> </ul>
<b>회유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임명(19 □□□ □□□), 과거제를 통해 한족 등용</li> <li>20 『□□□□』 등 대규모 편찬 사업 → 한족 지식인의 포섭, 반청(反淸) 사상 통제</li> </ul> <p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2px;">1782년 청의 건륭제 때 편찬되었다. 약 8만 권에 이르는 서적을 경(經), 사(史), 자(子), 집(集)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으며, 『□□□□』의 편찬은 고증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p>
<b>지방 통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족은 21 □□□□로 직접 통치, 몽골·티베트·신장 등의 22 □□□는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여 간접 지배</li> <li>23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0호를 1패로, 10패를 1갑으로, 10갑을 1보로 편성) 시행</li> </ul>

◆ 청 대의 통치 체제 정비



03. 쇠퇴

- 1795년 24 □□□□의 난 발생, 10 □□□□의 한계 노출 등 → 세력 약화

3 명 · 청 대의 사회와 경제

01. 사회

<b>24 □□□□의 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현직 관료, 과거 응시 자격이 있는 공립 학교 학생(명대에 학교와 과거제의 결합으로 형성)</li> <li>· 세금 징수·치안 유지·향촌 교화 등에 참여</li> <li>· 각종 특권(요역 면제, 가벼운 형벌 면책 등), 대토지 소유, 고리대·공공사업 감독·세금 납부 대행 등으로 이익 추구</li> </ul>
<b>25 □□(旗人)</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기에 소속된 사람, 만주족 외에 몽골족·한족도 팔기에 편성</li> </ul>

02. 경제 발전

<b>농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 □□□ 중류(명대)·상류(청대)가 곡창 지대로 발달, 상품 작물 재배(차, 면화, 담배 등)</li> <li>• 27 □□□와 고구마 등 외래 작물 전래 → 인구 증가에 영향</li> </ul>
<b>상공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 □□□ 하류 지역에서 발달, 면직물·비단·도자기 등 → 쑤저우와 항저우 등 대도시 발달</li> <li>• 산시 상인과 28 □□□ 상인 등 대상인 성장[29 □□□(동향인 조합), 공소(동업 조합) 등 설립]</li> </ul>
<b>대외무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대 : 해금 정책(16세기 후반 완화), 주변 국가들과 조공 무역 전개(30 □□□□ 막부 등과 감합 무역 전개)</li> <li>• 청대 : 31 □□□의 반청 세력(1661~1683) 진압을 위해 해금령 시행 → 1684년 이후 상인의 해외 진출 허용 : 서양과의 무역을 32 □□□로 제한(33 □□□을 통해서만 교역)</li> </ul>
<b>동서 교역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슬람 상인의 활동 및 서양 상인의 진출로 교역망 확대</li> <li>• 비단, 차, 도자기 수출</li> <li>• 일본과 아메리카산 은의 대량 유입 → 은으로 세금 납부(명의 34 □□□□□, 청의 35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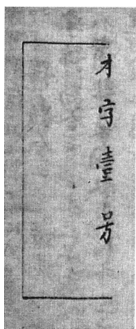
4 명·청 대의 문화

01.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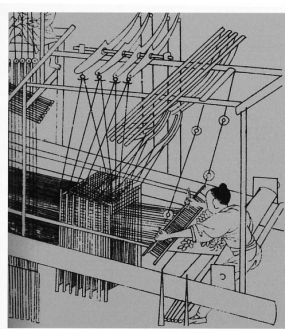
<b>학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6 □□□ 등장, 실용적 학문 발달(37 『□□□□』, 『본초강목』, 『농정전서』 등 편찬)</li> </ul> <p>17세기 명의 관료인 서광계가 저술한 농업 백과전서이다(1639). 중국의 전통 농업 기술을 계승하면서도 서양식 수리 기술과 같은 최신의 농업 기술도 수용하여 중국의 농학 지식을 집대성하였다.</p>
<b>서민 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국지연의』, 『수호전』, 『서유기』 등 인기</li> </ul>
<b>서양 문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수회 선교사들이 서양 학문 소개(무기 제조, 천문, 지리 등)</li> <li>• 38 □□□ □□ : 「곤여만국전도」 제작, 서광계와 함께 39 『□□□□』 간행</li> </ul> <p>「곤여만국전도」는 예수회 선교사 38 □□□ □□와 명의 학자 이지조(1571~1630)가 만든 세계 지도이다. 세계를 유럽, 아시아 등으로 구분하였고, 중국을 가운데 배치하였다.</p>

02.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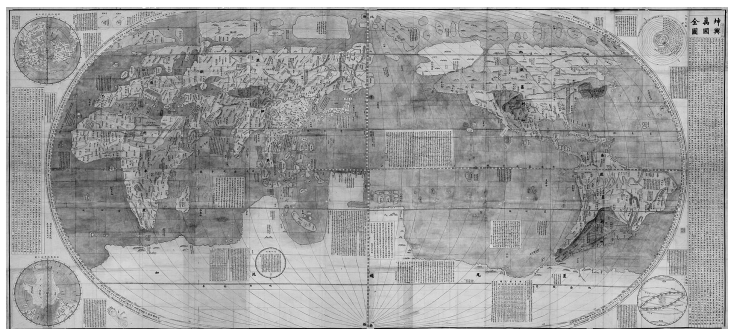
<b>학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증학과 공양학 발달, 『강희자전』·40 『□□□□』 등 편찬</li> </ul>
<b>서민 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 『□□□』 유행, 42 □□ 유행</li> </ul>
<b>서양 문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 □□ □의 활동(시헌력 제작 등), 전례 문제로 서양과의 교류 위축</li> </ul>



▲ 김합



▲ 천공기술



▲ 곤여만국전도

# II 1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1 일본의 고대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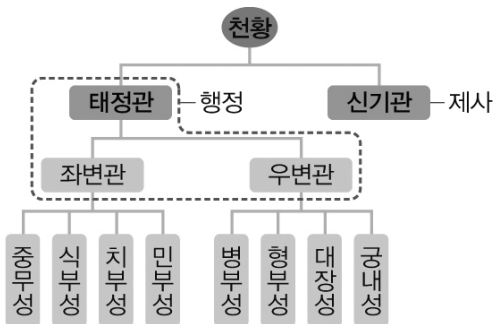
### 01. 신석기, 청동기 시대

1□□ 시대	• 신석기 문화, 1□□ 토기와 간석기 사용, 농경 시작
야요이 시대	• 대륙과 한반도에서 벼농사와 금속기 전파, 여러 소국의 성립 • 3세기경 30여 개 소국의 연합체 형성

### 02. 고대 국가의 발전

야마토 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세기경 성립 : 중국과 한반도에서 유학, 불교 등 수용</li> <li>• 2□□□ 태자의 섭정(593~622) : 중앙 집권 체제 강화 : 불교 진흥책 실시 → 3□□□ 문화 발달(호류사, 호류사 5층 목탑) : 견수사(遣隋使) 파견 시작(600)</li> <li>• 최초 4□□□ 파견(630)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top: 5px;">일본이 □의 선진 문물 및 불교 경전 등을 받아들일 목적으로 파견한 사절단이다. 630년부터 894년까지 파견되었다.</div> </li> <li>• 5□□□ □□(645) : 당의 율령 체제를 모방하여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수립을 위한 개혁 단행</li> <li>• 7세기 말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칭호 사용</li> </ul>
6□□ 시대 (710~7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세기 초 6□□ 지역에 7□□□□를 건설·천도</li> <li>• 4□□□·견신라사 파견, 율령 체제 확립</li> <li>• 불교 융성 : 8□□□□ 대불전과 불상 건립 등</li> <li>• 9『□□□』, 『일본서기』, 10『□□□』 등 편찬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top: 5px;">11『□□□』은 시가집으로, 천황에서부터 일반 서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삶과 감정을 담은 4,500수 이상의 시가가 수록되어 있다.</div> </li> </ul>
11□□□ 시대 (794~1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세기 말 12□□□□로 천도</li> <li>• 귀족과 호족이 장원 확대, 지방에서 무사 계층 성장</li> <li>• 9세기 말 4□□□ 파견 중지</li> <li>• 13□□ 문화 발달 : 고유 문자 '가나' 사용, 14□□(和歌) 유행, 주택·관복 등에서 일본 특색 등장</li> </ul>

### 1) 일본의 중앙 정치 기구



## II 2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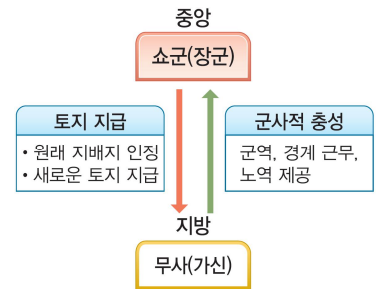
### 1 일본 막부 정권의 성립

#### 01. 막부 정권의 성립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세기 말 시대 후반 통치 체제 약화 → 귀족과 호족의 장원 확대, 무사들이 서로 연합하거나 항쟁하면서 무사단으로 발전</li> </ul>
-----------	---

#### 02. 12세기 말 막부(1185~1333)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세기 말 1185년 12월 18일 1219년에 수립</li> <li>막부의 수장인 쇼군이 무사들과 주종 관계 형성 → 점차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변모</li> </ul>
<b>변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74년, 1281년 12월의 두 차례 침공 방어 → 14세기 전반 1333년 막부 멸망</li> </ul>



## II 3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 1 일본 막부의 발전

#### 01. 무로마치 막부(1336~1573)

<b>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36년 12월 18일 1336년에 개창</li> <li>15세기 초부터 명과 1493년 무역 전개</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쇼군의 후계자 분쟁으로 세력 약화 → 1573년(센고쿠) 시대 시작 → 막부 붕괴</li> </ul>

#### 02. 14세기 말 15세기 초의 활동

<b>대내·대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시대 통일(1590) → 조선 침략과 실패(1592)</li> </ul>
--------------	--

#### 03. 16세기 말 막부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03년 12월 18일 1603년에 막부 개창(1603)</li> </ul>
<b>통치 체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03년 체제 : 쇼군이 중앙과 직할지 지배, 지방 다이묘들은 쇼군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영토(번)의 지배권 확보 : 다이묘 통제를 위해 1600년 제도 시행</li> <li>병농 분리, 무사·상공업자·농민의 직업과 신분 이동 금지 → 1603년(무사와 상공업자가 거주) 성장</li> </ul>
<b>경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로 진출하는 일본 상인에게 1603년 발급(1604~1635)</li> <li>17세기 전반 쇄국 정책 실시(크리스토프 포교 금지, 사무역 통제), 서양 상인 중 1600년 상인에게만 나가사키 앞 1600년에서의 무역 허용, 중국·조선과 교역 전개</li> <li>농업 발달, 상품 작물 재배 증가, 도로망 정비로 상공업 발전, 도시 성장 → 1603년(상인, 수공업자) 성장, 도시 상공업자들의 동업 조합 조직</li> </ul>
<b>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부키, 우키요에 등 1603년 문화 유행</li> <li>1603년(인)을 통해 의학, 천문학 등 전래 → 1603년(란가쿠) 발달</li> </ul>

# III 1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의 형성

##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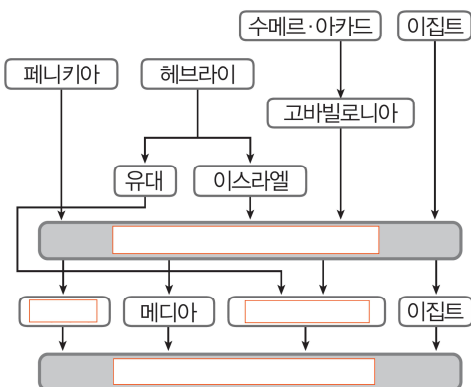
### 01. 1000000의 서아시아 최초 통일

<b>성립과 발전</b>	• 아슈르바니팔 왕, 철제 무기와 기마병을 앞세워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 통일(기원전 7세기)
<b>통치</b>	• 수도 20000(Nineveh)에 왕립 도서관 건립 • 중앙 집권 통치 → 도로 정비, 정복지에 총독 파견
<b>멸망</b>	• 피지배 민족을 3000적으로 통치 → 4000000와 메디아 연합군의 20000 점령 → 하란(Harran) 함락으로 멸망(기원전 609)

### 02. 5000000 왕조 페르시아의 성립과 발전

<b>키루스 2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전 6세기 제국의 기틀 마련</li> <li>• 60000의 수도인 사르디스 함락, 70000000 정복 등 서아시아 재통일</li> <li>• 원통 칙령 → 8000 정책(피지배 민족에게 공납을 받는 대신 그들의 전통과 신앙 존중)</li> </ul>
<b>캄비세스 2세</b>	• 이집트 정복
<b>다리오스 1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에 총독(사트라프) 파견 → 감찰관('왕의 눈', '왕의 귀')을 통해 감시</li> <li>• 도로(90000) 건설과 역참제 정비, 화폐와 도량형 정비</li> </ul> <p>9'000'은 1000에서 사르디스를 연결한 도로로, 전시에는 군사 수송, 평시에는 상업 용도로 이용되었다.</p>
<b>종교·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000 신봉</li> </ul> <p>세상을 선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와 어둠과 악의 신인 아리만이 대립하는 공간으로 보았고, 선한 신의 승리를 믿어 아후라 마즈다를 숭배하였다. 말세에는 심판을 수행하는 구원자가 등장한다. 이 외에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며 모든 사람은 죽음과 함께 개인적 심판을 받게 된다. 마지막 때에는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할 것이며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심판은 사람들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모든 악한 존재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000000 건설</li> </ul> <p>다리오스 1세 때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도시이다. 이 도시에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에는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스 등의 여러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p>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0 세계와의 전쟁(기원전 492~기원전 479)에서 패배</li> <li>• 지방 총독들의 반란</li> <li>• 4000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 등 50000000의 침공으로 멸망(기원전 331)</li> </ul>

###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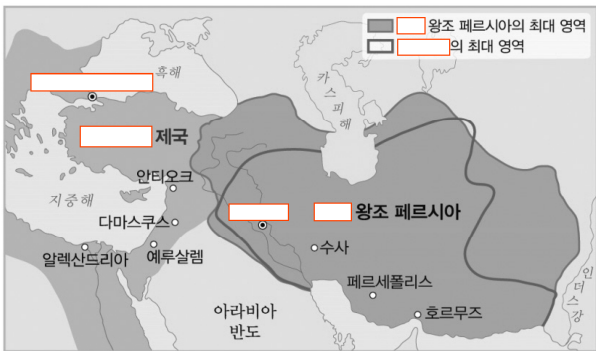


03. ⑬□□□□의 발전과 쇠퇴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 제국의 동방 영토를 차지한 ⑬□□□□ 왕조의 쇠퇴를 틈타 ⑬□□□ 계통의 유목민이 건국(아르사케스 1세, 기원전 247)</li> <li>수도 ⑭□□□□</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로데스 2세(재위 기원전 57~기원전 38), 로마 크라수스의 군대 격퇴(카레 전투, 기원전 53)</li> <li>로마와 인도(⑮□□□ 왕조), 중국(한 왕조)을 연결하는 동서 무역 장악 → ⑯□□□ 무역으로 번영</li> <li>정복지 주민들을 관대하게 통치</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마와의 대립으로 쇠퇴 → ⑰□□□ 왕조 페르시아에 멸망(226)</li> </ul>

04. ⑱□□ 왕조 페르시아

<b>건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⑲□□□□□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걸고 건국(아르다시르 1세, 224)</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⑲□□□□□에 도움</li> <li>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㉓□□□□강 유역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동서 교통의 요충지를 장악하여 중계 무역으로 번영</li> <li>사푸르 1세 : 로마와 경쟁(㉔□□□□ 전투에서 군인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포로로 잡음, 260)</li> <li>호스로 1세(재위 531~579) : 전성기 구가, ㉕□□□□ 제국과 경쟁</li> </ul>
<b>종교·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의 국교화, ㉖□□□□ 등장</li> <li>금속 세공품과 유리 공예품 등이 유럽과 동아시아까지 전파됨</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과 왕실의 내분</li> <li>정통 칼리프 우마르 휘하 군대와와의 까디시야 전투 패배(636) → ㉗□□□□ 함락(637) → 사한샤 야즈 데게르드 3세의 동쪽 도주·암살(651) → 페르시아의 ㉘□□□□ 세계 편입(651)</li> </ul>



▲ 로마 황제를 굴복시킨 사푸르 1세



# III 1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의 형성

## 2 이슬람 세계의 형성

### 01. 이슬람교 성립 이전의 아라비아 사회

<b>6세기 이전</b>	•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유목과 농경에 종사
<b>6세기 이후</b>	• ①□□ □□ 페르시아와 ②□□□□ 제국의 갈등 고조 →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지나는 교역로 활성화 → ③□□와 메디나 등 홍해 연안 도시 번성 • 빈부 격차 심화, 부족 간의 대립 심화

### 02. 이슬람교의 성립과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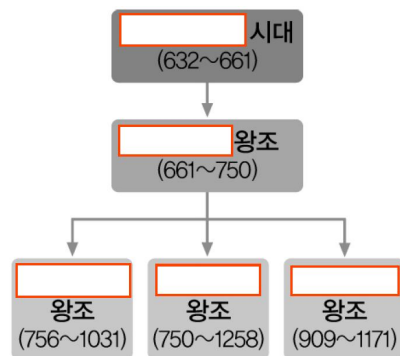
<b>성립</b>	•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가 알라를 ④□□□으로 신봉하며 창시
<b>특징</b>	• 우상 숭배 배격, 모든 인간은 알라 앞에서 ⑤□□하다고 주장
<b>박해</b>	• ③□□의 보수적인 귀족들의 박해 → 무함마드가 ⑥□□에서 메디나로 이동(⑥□□□, 622)
<b>전파</b>	• 메디나에서 교세 확장 → 무함마드가 ⑦□□□ 장악, ⑦□□□반도의 대부분 점령

## 3 이슬람 제국의 발전

### 01. 정통 ⑧□□□ 시대(632~661)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로 ⑧□□□ 선출</li> <li>• ①아부 바크르(재위 632~634) → ②우마르(재위 634~644) → ③우스만(재위 644~656) → ④알리(재위 656~661)</li> </ul> <p>아라비아반도에서 무슬림의 정복 활동으로 탄생한 대제국의 통치자는 ⑧□□□, 즉 믿는 자들의 지도자이자 신의 예언자인 무함마드의 대리인이었다. 무함마드 사후 최초의 ⑧□□□로 선출된 인물은 무함마드의 오랜 동료이자 성인 남성 중 가장 먼저 이슬람교로 개종한 아부 바크르였다. 아부 바크르의 뒤를 이어 우마르, 우스만, 알리가 ⑧□□□로 선출되었다. 이들 모두는 예언자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이자 무슬림 공동체의 원로였다.</p>
<b>발전</b>	• ⑨□□□ 정복, ⑩□□ □□ 페르시아를 멸망시킴

### ● 이슬람 세계의 성장



02. ⑩□□□□ 왕조(661~750)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대 ⑧□□□ 알리 피살 → ①□□□□가 ⑧□□□가 됨, ⑩□□□□ 가문이 ⑧□□□ 세습</li> <li>카르발라의 참극(680) → 시아파와 ⑫□□□의 대립</li> </ul> <p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⑫□□□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이슬람교도라면 누구나 ⑧□□□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시아파는 알리와 그 후손만을 무함마드의 정통성 있는 후계자로 여겼다.</p>
<b>통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⑬□□□ 우월주의 정책</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⑭□□□□□에 도움</li> <li>인더스강 유역에서 북아프리카와 ⑮□□□□반도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li> </ul> <p>① ~ ④는 시간순</p> <p>① 마르즈 라히트 전투에서 승리하여 시리아 일대의 지배권을 확립함.</p> <p>② 카르타고를 점령하여 북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함.</p> <p>③ 베르베르인을 제압하여 탕헤르 일대를 차지함.</p> <p>④ 마슬라마가 이끄는 군대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함.</p>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⑯□□□·□□□□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패배(732)</li> <li>⑰□□□ 가문에 멸망</li> </ul>

03. ⑱□□□ 왕조(750~1258)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부 알 아바스가 ⑱□□□□ 왕조에 불만을 가진 세력(비아랍인, ⑲□□□□)의 도움으로 건국</li> </ul>
<b>통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⑲□□□□의 특권 폐지 →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과의 ⑲□□□□ 전투(751) 승리 → 동서 무역의 주도권 장악</li> <li>알 만수르(재위 754~775), ⑳□□□□(‘메디나트 알 살람’)에 도움</li> <li>알 마문(재위 813~833), 지혜의 집(도서관이자 학문 연구와 번역 기관) 건립</li> </ul> <p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크레타를 정복한 자가 황제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퍼질 정도로 크레타 탈환은 ㉑□□□□ 제국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당시 크레타는 무슬림들의 수중에 있었는데, 이들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던 ㉒□□□□ 왕조의 영향을 받는 한편, ㉒□□□□ 왕조의 북아프리카 영토를 차지한 신흥 왕조 파티마와도 교류하고 있었다. …… 수만 명으로 구성된 ㉑□□□□ 제국의 원정대가 크레타 북부 해안의 요새 도시 칸닥스를 함락시키자 크레타의 무슬림들은 항복하였다. 원정대는 귀국하여 큰 환대를 받았고, 그 사령관 포카스는 예언대로 훗날 황위를 잇게 되었다.</p>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 세력의 성장, 이민족의 침입 → 셀주크 튀르크에 정치적 실권(㉓□□ 칭호) 부여</li> </ul> <p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⑳□□□□의 동의를 받아 지배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초기에 ㉓□□□□가 칭호를 하사하였으나, 점차 자처하는 지배자가 늘어났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㉑□□□의 침략으로 멸망</li> </ul>

04. 후우마이야 왕조(756~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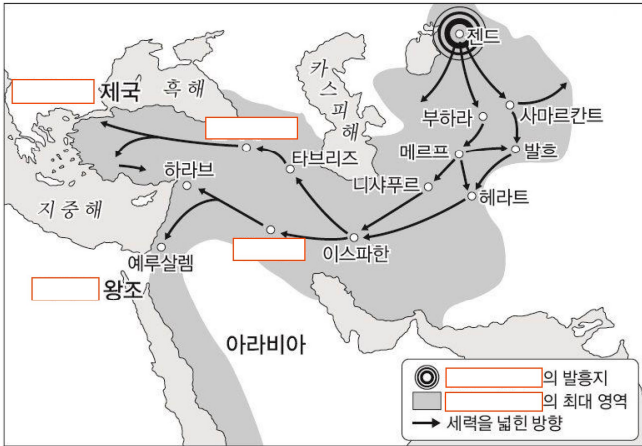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마이야 왕조의 일족인 압둘 라만이 ㉒□□□□반도에 건국(756)</li> <li>㉒□□□□□에 도움</li> </ul>
<b>통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세기 전반에 ㉓□□□□ 선언(알 하잠 2세)</li> <li>유럽에 이슬람 문화 전파(㉒□□□□ 메스키타)</li> </ul>

05. ④□□□ 왕조(909~1171)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⑧□□□ 계열 분파인 이스마일파 압둘라 알 마흐디가 북서부 ⑤□□□ 튀니지에 건국</li> <li>②□□□ 천도(969)</li> </ul>
<b>통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세기 ①□□□ 왕조의 권위를 부정하고 ⑧□□□의 칭호 사용</li> <li>알 아즈하르 대학 설립(알 아즈하르 모스크 기반, 카이로, 970년경)</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유브 왕조에 멸망</li> </ul>

06. ⑦□□□ □□□(1037~1242)

<b>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로 이동, 이슬람 세계에서 용병 등으로 활약, 이슬람교로 개종</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다나칸 전투[호라산 지역, 가즈니 왕조(962~1186)에 승리, 1040년경]</li> <li>투그릴 베그가 ④□□□□에 입성하여 ①□□□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②□□의 칭호를 수여받고 정치적 실권을 위임받음(1055)</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p>이 시기 수니파인 ①□□□ 왕조는 시아파인 부와이 왕조의 꼭두각시에 불과하였다. 부와이 왕조의 압박에 지친 ①□□□ 왕조의 칼리프는 투그릴 베그에게 부와이 왕조의 무리를 차단해 달라는 도움을 요청했다. 투그릴 베그는 칼리프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④□□□□로 들어가 부와이 왕조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하고 칼리프를 구출해 주었다. 1055년의 일이다. 혼란과 불안 속에 있던 ②□□□□는 안정과 평화의 도시가 되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이희철, 『튀르크인 이야기』 -</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세력 확대 → ②□□□□ 제국 압박 → ③□□□ 전쟁 발발</li> <li>지중해 동부에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지역까지 영토 확장</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간 지속된 전쟁 및 왕조의 분열 → 멸망</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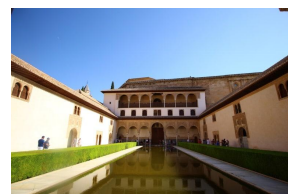


07. 그라나다 왕국(1231~1492)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스르 왕조 무함마드 1세(재위 1232~1273)의 창립</li> <li>알함브라 궁전 건립(1323)</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크리스트교 재정복 운동(Reconquista, 718~1492)으로 멸망</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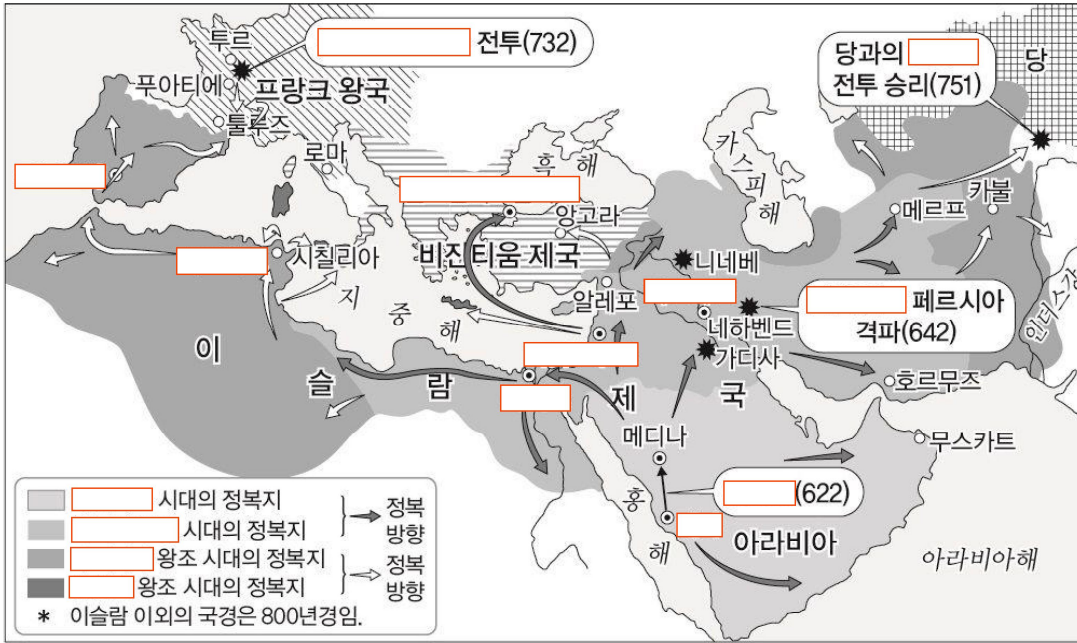


▲ 알 아즈하르 대학교



▲ 알함브라 궁전

● 이슬람 제국의 변천



4 이슬람 세계의 사회, 경제, 문화

01. 사회와 경제

<b>사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 가르침이 일상생활 지배</li> <li>5행의 실천 중시(신앙 고백(샤하다), 메카를 향한 예배(살라트), 라마단 기간의 금식(사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선(자카트), 메카 순례(하지))</li> <li>② □□□□를 거두는 대신 피지배 민족의 종교 인정</li> <li>일부다처 허용,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식생활(하람)</li> </ul>
<b>경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로운 상업 활동 보장 → 상인 성장, 교역로를 중심으로 도시 발달</li> <li>이슬람 상인들은 낙타를 이용해 아프리카 내륙과 중국까지 왕래, 동아프리카·인도·동남아시아·중국에 이르는 ③ □□□□ 교역 주도(다우선 이용)</li> </ul>

02. 문화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서 문화 융합 : 정복지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융합</li> <li>문화권의 공통 요소 : 이슬람교, ④ □□□□</li> </ul>
<b>학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 연구 과정에서 신학과 법학 발달</li> <li>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이 아랍어로 번역됨 → 스킨라 철학 성립에 영향</li> <li>이븐 할둔(1332~1406), 『역사 서설』</li> </ul>
<b>문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라비안나이트』(여러 지역의 설화를 모음)</li> <li>이븐 바투타(1304~1368), 『여행기』</li> </ul>
<b>건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둥근 지붕(돔)과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하는 ⑤ □□□□ 양식과 ⑥ □□□□□□ 무늬 사용</li> </ul>
<b>자연 과학의 발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학(인도 숫자를 도입하여 아라비아 숫자 완성), 화학(연금술 연구 등), 천문 지식과 역법 발달</li> <li>이븐 시나(980~1037), 『의학정전(의학전범)』 저술</li> </ul>
<b>의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서 문화의 융합, 유럽의 르네상스 등에 영향</li> <li>중국의 제지법·나침반·화약 등을 유럽에 전파 → 유럽의 근대 과학 성립에 영향</li> </ul>

5 이슬람 세계의 팽창

01. 1111 제국(1299~1922)의 발전

<p><b>성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세기 말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 세력이 소아시아(1111) 지역에서 건국</li> </ul>
<p><b>발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예지트 1세(재위 1389~1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11반도 대부분 지배, 티무르 왕조와의 1111 전투 패배(1402)</li> </ul> </li> <li>1111 2세(재위 1451~14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복자, 1111 제국 정복(1453), 로마 황제 자처, 1111(이스탄불)를 수도로 삼음</li> </ul> </li> <li>1111 1세(재위 1512~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11 왕조와의 찰디란 전투 승리(1514)</li> <li>: 마르즈 다비크 전투(1516) 승리와 이집트의 1111 왕조(1250~1517) 정복 →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 장악 →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li> <li>: 아바스 왕조의 후손으로부터 칼리프 칭호 계승 → 술탄·칼리프제(정교일치) 확립</li> </ul> </li> <li>1111 1세(재위 1520~15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하치 전투에서 승리하며 1111 정복(1526), 1111 포위 공격·실패(1529), 1111 점령(1551)</li> <li>: 프레베자 해전(1538)에서 유럽의 연합 함대 격퇴 → 1111 교역에서 주도적 역할</li> <li>: 법전 편찬(선대 술탄들이 공포한 법령 정비, 입법자), 건축과 문학 및 회화 등 예술 분야 후원</li> </ul> </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data-bbox="343 784 949 1198"> </div> <div data-bbox="965 784 1452 1198">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셀림 2세(재위 1566~15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11 해전 패배(에스파냐 중심의 크리스티교 연합 함대, 1571) → 1111 제해권 상실</li> </ul> </li> </ul>
<p><b>통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11(일종의 군사적 봉건제) 실시</li> <li>1111 제도를 통한 1111와 관료 육성</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그들의 출신은 다양했다. 돈에 팔려 온 사람도 있었고 전쟁 포로로 잡혀 온 사람들도 있었다. 주로 1111반도 등지의 크리스티교 청소년들은 1111라는 제도를 통해 징발되었다. 이들은 이스탄불이나 부르사로 보내져 이슬람교도로 교육받았으며, 그 후 적성에 따라 군사적 혹은 행정적 직책을 부여받았다.</p> </div>
<p><b>경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서 교역의 교차로에 위치 → 동서 중계 무역으로 번영</li> </ul>
<p><b>사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민족과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1111 납부 시 비이슬람교도의 신앙 인정)</li> <li>종교 공동체인 1111 인정</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같은 종교로 이루어진 종교 공동체로 그리스 정교, 유대교 등이 각각의 1111를 이루었다. 1111 제국은 1111에 종교적인 자유와 함께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하였다.</p> </div>
<p><b>문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튀르크, 페르시아, 1111 제국의 문화 융합</li> <li>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 실용적인 학문 발달</li> <li>술탄 아흐메드 사원(블루 모스크) 건립</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콘스탄티노폴리스에 건립된 이슬람 사원으로, 술탄 아흐메드 1세가 성 소피아 성당을 능가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푸른색 타일이 많이 사용되어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린다.</p> </div>

02. 120000 왕조(1370~1507)의 발전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0000가 120000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며 건국(1370)</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제국 건설</li> <li>10000 제국 압박(120000 전투, 1402), 명 원정 시도</li> <li>수도 12000000를 중심으로 동서 무역을 통해 번영</li> <li>페르시아 문화와 튀르크 문화 융합</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0000 사후(1405) 세력 약화</li> <li>: 후계자 자리를 두고 네 아들 간에 분쟁 발생 → 샤 루흐(재위 1409~1447)의 계승</li> <li>12000000에게 멸망</li> </ul>

03. 150000 왕조(1501~1736)의 발전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00000 1세(재위 1501~1524)</li> <li>: 이란 지역에서 건국, 전통적인 페르시아의 군주 칭호인 '샤' 사용</li> <li>: 150000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함</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니파 국가인 10000 제국과 대립</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 5px 0;"> <p>10000의 술탄이 완충 지대에 위치한 돌카디르 왕조를 공격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맘루크 왕조의 술탄은 150000와 연합 세력을 구축하였다. 당시 150000는 10000과 서쪽으로 국경을 접하며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지배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00의 술탄은 포병과 소총 부대를 이끌고 원정에 나서 기병대를 앞세운 맘루크 왕조의 군대를 격파하고 15000000에 입성하였다. 뒤이어 150000를 정복하여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진출하였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바스 1세(재위 1588~1629)</li> <li>: 수도 1500000 천도, 군사력 강화, 이맘 광장·이맘 모스크('왕의 모스크') 건설</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왕실 내부의 갈등과 혼란 → 1500000의 침입으로 멸망</li> </ul>



# III 2 인도의 역사와 종교 · 문화

## 고대 인도 세계의 발전

### 01. 불교와 자이나교의 출현

<b>배경</b>	• 기원전 7세기경 갠지스강 유역에서 도시 국가 간의 전쟁 빈번, 상업 발달 →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의 성장 → 형식화된 ①□□□교의 제사 의식 반대, ①□□□ 중심 사회 비판
<b>불교</b>	• 고타마 싯타르타(석가모니)가 창시, 인간 평등과 윤리적 실천을 통한 ②□□ 강조
<b>자이나교</b>	• ③□□□□□(마하비라)가 창시, 고행과 금욕 강조

### 02. ④□□□□ 왕조의 발전(기원전 322~기원전 180)

<b>건국 배경</b>	• 알렉산드로스의 원정군이 인더스강 유역 침공 → 통일 자국 • 기원전 4세기경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인도 북부 통일, 수도 ⑤□□□□□□
<b>전성기</b>	• ⑥□□□ 왕(재위 기원전 270~기원전 230년경) :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 지역을 통일 : 불경을 정리하고 ⑦□□ 대탑과 같은 불탑(스투파)과 ⑧□□(돌기둥) 건립 •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⑨□□□ 불교 발달 → 동남아시아에 전파
<b>쇠퇴</b>	• ⑥□□□왕 사후 급격히 쇠퇴, 이민족의 침입 → 분열



### 03. ⑩□□ 왕조의 발전(30~275)

<b>건국</b>	• 1세기경 ⑪□□ 계통의 ⑫□□족이 세움, 수도 푸르샤푸라
<b>발전</b>	• 중국, 인도,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계 무역으로 번영(한과 ⑬□□□□로 이어지는 동서 교역)
<b>전성기</b>	• ⑭□□□□ 왕(재위 128~151) :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최대 영토 확보, 불교 지원과 포교에 노력 • 중생의 구제 강조, 부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⑮□□ 불교 발달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top: 10px;">'□□'은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태우는 '큰 수레'라는 뜻이다. □□ 불교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며 등장하였고, 보살의 역할을 이상으로 삼았다. □□ 불교에서는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중생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부처가 되지 않은 보살을 존경하였다.</div>
<b>⑮□□□ 양식</b>	• 인도 서북부의 ⑯□□□ 지방에서 발달 • 인도 문화와 ⑰□□□□ 문화의 융합, 불상 제작 • ⑱□□ 불교와 함께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전파

### ⑮□□□ 양식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를 불상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법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부처의 발자국, 수레바퀴, 연꽃 등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 인도 문화와 ⑰□□□□ 문화의 융합으로 ⑮□□□ 양식이 발달하였다. 이 시기 ⑮□□□ 지역에서는 그리스인이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조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불상이 활발하게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2 17 □ □ 왕조와 인도 고전 문화의 발달


01. 16 □ □ 왕조의 발전(320~550)

건국	• 4세기경 갠지스강 유역에서 16 □ □ □ □ 1세가 건국
발전	• 찬드라굽타 2세가 벵골만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영토 확장 → 최대 영토 확보
쇠퇴	• 5세기경 16 □ □ □ □의 침입, 왕위를 둘러싼 내분 → 6세기에 멸망

02. 20 □ □ □ □의 발전

형성	• 1 □ □ □ □ 교를 바탕으로 불교 및 다양한 민간 신앙이 융합
숭배 대상	•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라마 등 다양한 신을 숭배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들이 자신을 비슈누에 비유하며 20 □ □ □ □ 후원, 카스트에 따른 의무 수행 강조, 20 『□ □ □ □』 정비</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top: 5px;"> <p>산스크리트어로 '내려온 자'라는 뜻을 갖는 아바타라는 세상은 일정한 질서 법칙에 의해 작동되며 그 질서 체계가 손상되면 천상에 거처하는 신이 그것을 복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지상에 내려온다는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이 관념은 비슈누, 시바 등 주요 신들과 관련되지만 특히 유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인 비슈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p> </div>

03. 인도 고전 문화의 발달

특징	• 인도 고유의 특색 강조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 □ □ □ □ 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22 □ □ □ □ 문학 발달</li> <li>: 20 □ □ □ □ 가 희곡 『샤쿤탈라』, 서정시 『메가두타』 집필</li> <li>: 서사시인 『마하바라타』, 『라마야나』가 정리됨</li> </ul>
17 □ □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 □ □ □ 양식과 인도 고유의 특색 융합</li> <li>: 아잔타 석굴 사원, 엘로라 석굴 사원의 불상과 벽화 등</li> <li>: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의 불교 미술에 영향</li> </ul> 
자연 과학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리아바타</li> <li>: 원주율을 이용하여 지구의 둘레 추산, 지구의 자전설과 지동설 제기</li> <li>• 영(0)과 10진법 사용</li> <li>: 이슬람 세계의 자연 과학 발달에 기여</li> </ul>

● 고대 인도의 통일 왕조



▲ 4 □ □ □ □ 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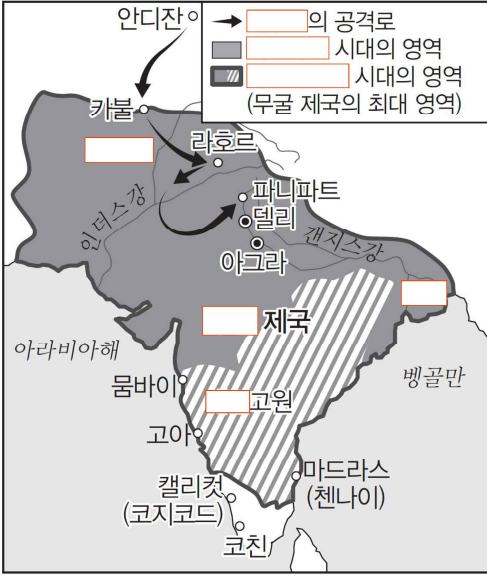
▲ 10 □ □ □ □ 왕조



▲ 17 □ □ □ □ 왕조



●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



04. 1600년 제국의 경제·문화

<b>경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양 무역 발달(면직물·향신료 수출) → 실크로 개척 이후 서양 상인 진출</li> </ul>
<b>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li> <li>• 힌두어에 페르시아어와 아랍어 등이 합쳐진 1600년어가 널리 사용됨, 공식 문서나 외교에서는 페르시아어 사용</li> <li>• 이슬람교 발전, 편자브 지방에서는 1600년 발전(1600년)가 창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 우상 숭배와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 반대, 성지 암리차르)</li> <li>• 5대 황제 샤자한의 1700년 건립(이슬람 건축 양식에 인도의 연꽃무늬 등 가미)</li> <li>• 1700년 회화 발달(페르시아의 세밀화와 인도 양식의 조화)</li> </ul>

4 인도 문화의 동남아시아 전파

3800년 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샤일렌드라 왕조 때 자와섬에 건립(8세기 중엽)</li> <li>• 대승 불교 사원(수많은 작은 탑의 집합체이면서 그 자체가 거대한 탑 모양을 띠고 있음)</li> </ul>
3900년 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00년 제국 앙코르 왕조 때 건립(12세기)</li> <li>• 힌두교 사원이었다가 불교 사원으로 바뀜</li> </ul>



3800년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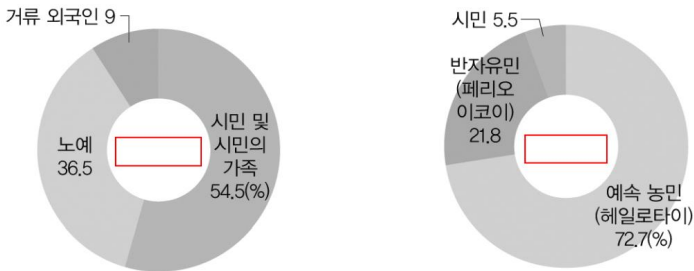
3900년 사원

# IV 1 고대 지중해 세계

## 01.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


<b>폴리스의 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원전 10세기경 형성 : 복잡한 해안선, 많은 산지 → 통일 국가 형성이 어려움</li> <li>구조 : ①□□□□□□(종교와 군사의 거점), 아고라(광장, 정치와 경제의 거점)</li> <li>강한 동족 의식 형성 : 헬레네스로 다른 민족과 구분, ②□□□□ 제전 개최</li> </ul>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 발전 : 왕정 → 귀족정 → ④□□□</li> <li>솔론 : 귀족정 시기 평민의 성장(중장보병의 핵심, 경제력 증가) → ⑤□□□에 따른 참정권 차등 분배</li> <li>페이시스트라토스 : 참주 정치</li> <li>⑥□□□□□□□ : 부족제 개편, 500인 평의회 구성, ⑦□□□□□□ 마련</li> </ul>
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리스인이 원주민 정복하여 성립 : 시민 소수, ⑨□□□□□(국유 노예)와 □□□□□□(반자유민)</li> <li>군국주의적 귀족 정치 : 군사 제도를 바탕으로 둔 엄격하고 폐쇄적인 사회</li> </ul>
<b>그리스·페르시아 전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원전 492~기원전 479</li> <li>세 차례 전쟁에서 그리스가 ⑩□□□□□ 왕조 페르시아 격퇴 :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플라타이아이 전투 등</li> <li>전쟁 이후 아테네의 성장 : ⑪□□□□□의 맹주</li> <li>⑫□□□□□□ 시대 : 아테네 민주 정치의 전성기(민회가 입법권 행사, 공직자 수당제와 추천제)</li> </ul>
⑬□□□□□□ <b>전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원전 431~기원전 404</li> <li>아테네 주도의 동맹과 스파르타 주도 동맹의 충돌 : 그리스 폴리스 내부의 분열</li> <li>스파르타가 패권 장악, 이후 그리스 세계 내분 → ⑭□□□□□□에 정복됨</li> </ul>
<b>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리적, 인간 중심적인 문화</li> <li>미술 : 조화와 균형의 미 중시, ⑮□□□□□□ 건축(기원전 438년), 아테네 여신상</li> <li>역사 :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li> <li>철학 : ⑯□□□□□(수사학, 변론), 소크라테스(절대적 진리) →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li> </ul>

### ▶ 폴리스의 비교(빅터 에렌버그, 『그리스 국가』)




# IV 1 고대 지중해 세계

## 02. 알렉산드로스 제국

<p><b>성립과 발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포스 2세의 폴리스 세계 장악</li> <li>• 알렉산드로스의 ①□□□□</li> <li>: ②□□□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 승리 → ③□□□□□ 왕조 페르시아 정복</li> <li>: ④□□□강 유역까지 진출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 융합 정책 : 페르시아의 전제군주제 수용, 피정복민의 전통과 관습 존중, 정복지에 ⑤□□□□□□ 건설,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 장려</li> </ul>
<p><b>⑥□□□□ 문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 융합 → 개방적, 세계 시민주의</li> <li>• 개인주의적 철학 발달 : 스토아학파(금욕주의), 에피쿠로스학파(마음의 안정과 만족 추구)</li> <li>• 자연 과학 발전 : 물리학(아르키메데스, 부력의 원리), 수학(에우클레이데스의 기하학), 태양중심설(아리스타르코스)</li> <li>• 예술 : 「밀로의 비너스상」, 「라오콘 군상」 등</li> <li>• ⑦□□□ 미술 성립에 영향</li> </ul>

# IV 1 고대 지중해 세계

## 03. 로마의 성립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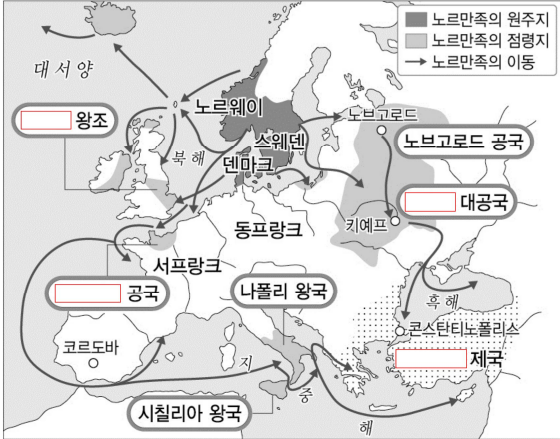
<p><b>공화정의 발전 (BC.50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민의 지위 신장(기원전 5세기 ~ 3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㉓□□□ 설치, 평민회 조직</li> <li>: ㉑□□□법 → ㉒□□□□□법(집정관 중 1인 평민 선출) → ㉒□□□□□□□법(법률상 귀족·평민 동등)</li> </ul> </li> <li>• 이탈리아반도 통일(기원전 272)</li> <li>• ㉒□□□ 전쟁(기원전 264~기원전 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마와 ㉒□□□□의 세 차례에 걸친 충돌 → 로마 승리, ㉒□□□□ 패권 장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㉒□□□□(대농장) 경영과 자영농의 몰락</li> <li>• ㉒□□□□ □□의 개혁 : 농지법과 곡물법</li> <li>• 스파르타쿠스의 난(기원전 73~기원전 71)</li> <li>• 삼두 정치(기원전 60~기원전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li> <li>: 2차(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의 ㉒□□□□ 해전 승리</li> <li>• 카레 전투(기원전 53) → ㉒□□□□와 충돌</li> </ul> </li> </ul>
<p><b>제정의 수립과 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타비아누스의 ㉒□□□□ 자처 →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 칭호 부여 → 사실상 제정 시작</li> <li>• 로마의 평화 시대(기원전 27~기원후 180) : 제정 시작 ~ 5현제 시대(96~180)</li> <li>• 군인 황제 시대(235~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르만족이나 ㉒□□ 왕조 페르시아 등 이민족 침입</li> <li>: 속주의 반란이나 독립으로 농경지와 노예 감소 → ㉒□□□□□ 제도 성행</li> </ul> </li> <li>• 중흥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㉒□□□□□□□□ 황제(재위 284~305, 전제군주제 확립, 4분 통치)</li> <li>: ㉒□□□□□□□□ 대제(재위 306~337, ㉒□□□□ □□ 이후 크리스티교 공인, ㉒□□□□□□□□ 천도)</li> <li>: ㉒□□□□□□□□ 황제(재위 379~395, 테살로니카 칙령 반포 이후 크리스티교 ㉒□□□□)</li> </ul> </li> <li>• 로마의 분열 → 서로마(395~476), 동로마(395~1453)</li> </ul>
<p><b>문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㉒□□□□ 분야 발달</li> <li>• 법 : 12표법 → 시민법 → 만민법</li> <li>• 건축 : 도로 건설, ㉒□□□□(원형 경기장), 판테온 신전, 개선문 등</li> <li>• 철학 : 스토아철학이 상류층에서 유행</li> <li>• 천문학 : 프톨레마이오스(천동설)</li> </ul>

# IV 2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 01. 프랑크 왕국의 발전

<p><b>게르만족의 이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 증가, 로마 제국 약화, 훈족의 압박 속에서 대규모 이동</li> <li>서고트 왕국, ❶□□□□(카르타고 점령, 435~534), 프랑크 왕국(481~987), 동고트 왕국(이탈리아 왕국, 493~553) 등 성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게르만족 용병 오도아케르에 의해 ❷□□□ 제국 멸망</li> </ul>
<p><b>프랑크 왕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로베우스 왕조(481~7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❸□□□□(재위 481~511, 왕조 개창,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li> <li>❹□□□□ □□□[궁재(宮宰), ❹□□·□□□□ 전투에서 우마이야 왕조 격퇴(732)] → 서유럽 보호</li> </ul> </li> <li>카롤루스 왕조(75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❺□□(재위 751~768, 킬데리쿠스 3세를 폐위하고 왕조 개창, 라벤나 지역을 교황청에 기증)</li> <li>❻□□□□ 대체[재위 768~814, 서로마 황제 대관(800), 문예 부흥 노력과 ❸□□□□ □□□□]</li> <li>❼□□□□ 조약(843), ❽□□□□ 조약(870)</li> <li>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분열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기원</li> </ul> </li> </ul>

## 2. 서유럽 봉건 사회의 성립

<p><b>봉건제의 형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세기 말 노르만족의 대이동 →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건제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주군과 봉신의 쌍무적 계약관계, 봉신의 불입권 인정 → 지방 분권화 촉진)</li> <li>장원제(영주 직영지와 농노 보유지, ②□□□ 경작 방식)</li> </ul> </li> <li>③□□(일하는 자, 영주의 지배를 받는 예속 농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 가능, 재산 소유, 부역과 공납의 의무, 영주의 시설 이용료 납부, 거주 이전의 자유 없음</li> </ul> </li> </ul>
<p><b>봉건 국가의 발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프랑크(카페 왕조 개창, 987), 동프랑크(오토 1세가 신성 로마 황제 대관, 962), ④□□□ 왕조 개창(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이 잉글랜드 정복, 1066)</li> </ul>

## 3. 크리스티교 세계의 성립과 발전


<p><b>크리스티교의 발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직 계서제(봉건적 주종 관계 형성) : 교황 → 대주교 → 주교 → 교구 성직자(사제)</li> <li>레오 3세의 ⑤□□ □□□(726) : 서로마 교회에 대한 ⑥□□□□ 제국 황제의 지배권 강화 의도</li> <li>동서 교회의 분열(1054) : 로마 가톨릭교회, ⑦□□□ □□□(정교일치의 황제 교황주의)</li> <li>교회 개혁 운동(10세기) : 교회의 세속화 → 클뤼니 수도원 중심</li> <li>⑧□□□□ □□(10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⑨□□□ □□□을 두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의 대립</li> </ul> </li> <li>⑩□□□ □□(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황 칼리스투스 2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 → 교회법에 따른 성직자 임명</li> </ul> </li> <li>인노켄티우스 3세(재위 1198~1216) 때 교황권 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차 십자군 전쟁(1202~1204), 존왕 파문(1209),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li> </ul> </li> </ul>
-------------------------	--

## 4. 서유럽 봉건 사회의 문화

<p><b>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크리스티교 중심의 문화</li> <li>⑪□□□ 철학 : 신앙과 이성의 조화 추구,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의 『신학대전』(1267)</li> <li>대학 : 종합적 성격으로 자치 운영, 파리 대학(신학, 교수 조합)·볼로냐 대학(법학, 학생 조합)</li> <li>로마네스크 양식(11세기) : 돔과 원형의 아치, 피사 성당</li> <li>고딕 양식(12세기) : 첨탑, 스테인드글라스, 샤르트르 대성당·노르트담 대성당·켈른 성당 등</li> <li>기사도 문학 : 『니벨룽겐의 노래』, 『아서왕 이야기』, 『롤랑의 노래』</li> </ul>
------------------	--

# IV 2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 01. 비잔티움 제국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정교일치)</li> <li>• 수도 ②□□□□□□□□ → 동서 교통의 중심지로 번영</li> </ul>
<b>변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 황제(재위 527~565)</li> <li>• : 전성기, 북아프리카 진출[반달 왕국(, 435~534) 정복], 이탈리아 장악[동고트 왕국(493~553) 정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마법 대전』 편찬, 성 소피아(아야 소피아) 성당 건립(537)</li> <li>• 이라클리오스 황제(재위 610~641)</li> <li>• :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전쟁에 대비하여 ④□□ 설치</li> <li>↳ 31개의 군관구, 황제가 임명한 스트라테고스(사령관)가 군사·행정·사법권 행사</li> <li>• : 둔전병제(屯田兵制, colonial militia) 시행</li> <li>• 사산 왕조 페르시아(224~651)와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시리아, 이집트 상실</li> <li>• : 야르무크 전투(비잔티움 제국·사산 왕조 페르시아 연합 ↔ 칼리프 우마르 휘하의 군대, 636)</li> <li>• 11세기 ⑤□□□ □□□ 침입</li> <li>• : 알렉시우스 1세(재위 1081~1118)가 서유럽에 파병 요청 → 십자군 전쟁 발발(1096)</li> <li>• 제4차 십자군 전쟁(1202~1204)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 ⑥□□ 제국 건설(1204~1261)</li> <li>• ⑦□□□ 제국의 메(흐)메트 2세에 의해 멸망(1453)</li> </ul>
<b>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징 : 그리스어(공용어), 그리스 정교 + 그리스·로마 문화 + ⑧□□□□ 문화 → 독자적 문화 발전</li> <li>• 비잔티움 양식 : 웅장한 돔, 모자이크화 발달, ⑨□□ □□□ 성당</li> <li>• 영향</li> <li>• : ⑩□□□ 문화(러시아·동유럽 문화)의 발전</li> <li>• : 키예프 공국의 성장[그리스 정교 국교화, 성 소피아 대성당(키이우) 건립]</li> </ul>

## 02. 봉건 사회의 변화

<b>⑪□□□ 전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li> <li>• : 셀주크 튀르크의 예루살렘 점령(1071) → 성지 순례 박해</li> <li>• : 셀주크 튀르크의 비잔티움 제국 압박 → 비잔티움 황제의 도움 요청</li> <li>• :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⑫□□□□ 공의회 소집(1095)과 성지 회복 호소</li> <li>• 전개</li> <li>• : 국왕, 제후, 상인, 농민 등 참여</li> <li>• : ⑬□□□ 십자군[1096~1099, 성지 탈환 성공, ⑭□□□□ 왕국 건설(성모 수호자 고트프루아)]</li> <li>• : 제3차 십자군[1189~1192, 아이유브 왕조의 살라딘 ↔ 영국의 리처드 1세, 평화 협정 체결]</li> <li>• : ⑮□□□ 십자군[1202~1204, 베네치아 상인 개입,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 ⑯□□ 제국 건설]</li> <li>• 영향</li> <li>• : ⑰□□□ 약화, 제후와 기사 몰락, 왕권 강화, ⑱□□ □□ 활성화, 서유럽의 문화 자국</li> </ul>
----------------	---

<p>11 □□□ 전쟁</p>	
------------------	--

<p>교역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거리 교역과 11 □□ □□ 발달</li> <li>• 지중해 무역권(이탈리아의 베네치아-피렌체 등), 상파뉴 지방(정기시 발달, 지중해와 북유럽 연결), 북유럽 무역권(뤼베크, 함부르크 등의 도시가 참여하여 12 □□ □□ 결성)</li> </ul>
---------------	---

<p>도시의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권 획득 : 도시민들이 재력 또는 무력으로 특허장을 획득하여 자치권 행사 → 독자적으로 도시 행정 운영</li> <li>• 길드 조직 :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이익과 안전을 위해 조직, 생산과 상업 활동 통제(상인 길드, 수공업자 길드)</li> </ul>
---------------	---

<p>장원제의 해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 : 화폐 경제 발달 → 영주가 농노에게 부역 대신 현물·화폐 지대 요구 → 농노의 지위 향상 : 12 □□□의 유행 → 노동력 감소 → 농노의 처우 개선</li> <li>• 농노 해방과 자영 농민 증가 → 장원 점차 해체</li> <li>• 농민봉기 : 일부 영주들의 속박 강화, 12 □□ 전쟁으로 인한 과도한 증세 : 13 □□□의 난(프랑스, 1358), 14 □□ □□의 난(영국, 1381)</li> </ul>
----------------	--

<p>교황권의 쇠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 :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교황의 권위 약화</li> <li>• 13 □□□ □□(1309~1377) :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 → 최초 삼부회 소집(1302) → 필리프 4세가 교황을 굴복시킴(아나니 사건) → 교황청이 16 □□□□으로 옮겨짐</li> <li>• 교회의 대분열(14 □□□□~□□□□) :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어 대립</li> <li>• 교회 개혁의 움직임 : 위클리프, 후스의 교회 비판(『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 강조)</li> <li>• 15 □□□□ 공의회(1414~1418) :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 후스 화형, 새로운 단일 교황 선출(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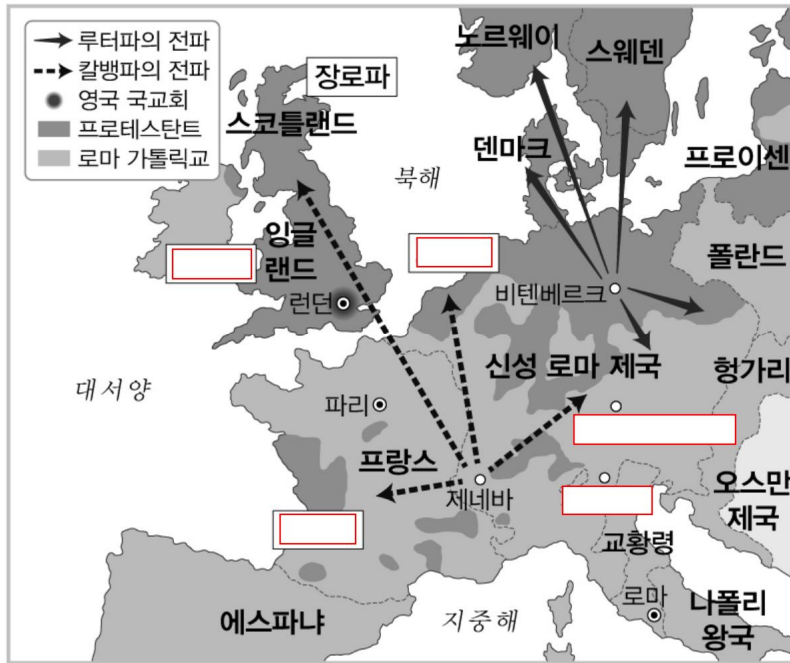
<b>왕권의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건 영주의 세력 약화, 교황권 쇠퇴, 도시 상공업자들의 성장</li> <li>• 국왕이 상비군과 관료 양성, 사법권과 과세권 확대</li> </ul>
<b>유럽 각국의 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왕의 ㉔□□□ 승인(1215)</li> <li>: ㉕□□ 전쟁(1337~1453) → 장미 전쟁(1455~1485) →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li> </ul> </li> <li>•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프 2세의 왕권 강화 → ㉖□□ 전쟁(잔 다르크의 활약 등으로 승리) →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li> </ul> </li> <li>• 독일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㉗□□ □□ □□ 황제의 명목상 통치, 제후의 강력한 세력 유지</li> </ul> </li> <li>• 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황령, 베네치아·피렌체 등 도시 국가, 나폴리 왕국 등으로 분열</li> </ul> </li> <li>• 이베리아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복 운동 과정에서 아라곤과 카스티야 성립 → 에스파냐 왕국 탄생(1469) → 이슬람의 근거지인 ㉙□□□□ 정복(1492)</li> <li>: 카스티야로부터 독립한 ㉚□□□□의 성장</li> </ul> </li> </ul>

### 03.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b>르네상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 : 14~16세기에 전개된 그리스·로마 고전 문화 부흥 운동, '부활'·'재생'을 의미</li> <li>• ㉛□□□□의 르네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고전 문화의 전통 존중, ㉜□□□□ 제국의 많은 학자 유입, ㉝□□□□ 무역으로 부유해진 상인·군주들이 문예 활동 장려</li> <li>: 그리스·로마의 고전 작품 연구, 인문주의(휴머니즘) 및 예술 분야 발달</li> <li>: 인문주의자[페트라르카(서정시), ㉞□□□□(『데카메론』), 마키아벨리(『군주론』)]</li> <li>: 보티첼리(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모나리자), 미켈란젤로(다비드상), 라파엘로(아테네 학당)</li> </ul> </li> <li>• ㉟□□□□ 이북의 르네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 사회와 교회 비판, 초기 크리스티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 → ㊱□□□□에 영향</li> <li>: 인문주의자[㊲□□□□□(『우신예찬』), 토머스 모어(『유토피아』)]</li> <li>: 반에이크 형제(유화 기법 개발), 브뤼헬(서민의 생활 모습 표현) 등</li> <li>: ㊳□□□□ 발달[세르반테스(『돈키호테』), 셰익스피어(『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등)]</li> </ul> </li> <li>• 과학 기술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르네상스 시대의 관찰과 탐구 정신, 중국에서 전래된 과학 기술의 개량</li> <li>: 화약(봉건 기사의 몰락 촉진), ㊴□□□(원거리 항해에 이용,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 구텐베르크의 ㊵□□□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의 확산에 기여)</li> </ul> </li> </ul>
<b>종교 개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㊶□□□의 종교 개혁(1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 마련을 위해 ㊷□□□ 판매</li> <li>: 신앙과 신의 은총에 의한 구원, 신앙의 근거는 『성서』(성서 지상주의)</li> <li>: ㊸□□□의 「95개조 반박문」 제시 → ㊹□□□파와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립</li> <li>: ㊺□□□□□□□ 화의(1555, ㊻□□□파 인정)</li> </ul> </li> <li>• ㊼□□□의 종교 개혁(15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설 주장, 근면하고 검소한 작업 생활 강조</li> <li>: 신흥 상공업자의 호응 → 영국(청교도), ㊽□□□(위그노), 네덜란드(㊾□□□) 등지로 전파</li> </ul> </li> <li>• 영국의 종교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를 계기로 교황과 대립 →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경제적 동기</li> <li>: 수장법을 통해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㊿□□□□) → 수도원 해산, 교회 토지·재산 몰수</li> <li>: ㋀□□□□□ 1세의 통일법 반포(1559) → 영국 국교회 확립</li> <li>: 교리는 신흥, 의식은 구교에 가까움</li> </ul> </li> </ul>

<b>종교 개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수회 설립(1534) : 에스파냐의 로올라가 설립, 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에서 선교 활동 전개</li> <li>•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응 : 공의회[1545~1563, 교황과 교회의 권위 재확인, 폐단 시정 노력, 예수회 승인, 교회 내부의 결속강화(종교 재판소 설치, 금서 목록 작성 등)]</li> </ul>
--------------	---


<b>종교 전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 : 종교 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신교)와 로마 가톨릭교(구교)의 대립 격화</li> <li>• 독립 전쟁(1568~1648) : 신교도(고이센)를 중심으로 에스파냐와 전쟁 → 독립 달성</li> <li>• 프랑스 위그노 전쟁(1562~1598) : 앙리 4세의 칙령(1598,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분 허용)</li> <li>• 독일 지역 전쟁(1618~1648) : 국제 전쟁으로 확대 → 조약 체결(1648, 인정, 독립 승인)</li> </ul>
--------------	--




# IV 3 유럽 세계의 변화

## 1 신항로 개척


### 01. 신항로 개척의 배경과 과정

<p><b>신항로 개척의 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방에 관한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호기심 자극</li> <li>: 동방 산물(향신료, 비단 등)에 대한 욕구 증대</li> </ul> </li> <li>• ①□□□ 제국의 동서 무역 주도로 인해 동방과의 직거래를 위한 새로운 무역로 필요</li> <li>• 조선술과 항해 도구(나침반 사용) 등 기술의 발달 → 원양 항해 가능</li> </ul>
<p><b>유럽의 신항로 개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도 : 포르투갈과 에스파냐(②□□□ 진출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신항로 개척 주도)</li> <li>• ③□□□□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 도착, 1488)</li> <li>: ④□□□ □ □□(인도 항로 개척, 1498)</li> </ul> </li> <li>• ⑤□□□□의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럼버스(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 도착, 1492), 마젤란(그의 일행이 세계 일주 성공, 1522)</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신항로 개척</p>

### 02.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와 변화

<p><b>아메리카 문명의 파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⑥□□□□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멕시코고원 일대, 테노치티틀란(수도), 그림 문자 사용, 피라미드식 신전 건설</li> <li>: ⑦□□□□ 코르테스의 침략으로 파괴(1526)</li> </ul> </li> <li>• ⑧□□□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데스 고원 일대, 쿠스코(수도)에 거대한 태양 신전 건설, 새끼줄 매듭(키푸)으로 정보 교환</li> <li>: ⑦□□□□ 피사로의 침략으로 파괴(1533)</li> </ul> </li> </ul>
<p><b>아메리카의 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르데시야스 조약(1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남아메리카 분할</li> </ul> </li> <li>• 수탈 및 전염병 등으로 원주민의 수 급감</li> <li>• 유럽인의 대농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탕수수 and 담배 등 재배</li> <li>: 원주민의 강제 노동 및 아프리카인의 노예 노동 이용</li> </ul> </li> <li>• ⑦□□□□의 광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토시 은광(1545), 사카테카스 은광(1546)</li> <li>: ⑨□□□□를 통해 은이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이동</li> </ul> </li> </ul> 

### 03. 유럽 교역망의 확대

<b>교역망의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중해에서 점차 ①□□□으로 확대</li> </ul>
<b>세계적 교역망의 형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각 무역을 중심으로 한 ②□□□ 교역의 발달 → ③□□□□ 성행</li> <li>• ④□□□ 교역을 통해 아메리카의 은이라는 결제 수단을 갖춘 유럽인의 아시아 진출</li> </ul>
<b>유럽의 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 은 등 귀금속의 유럽 유입 → 유럽 물가 급등(가격 혁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의 경제 성장(산업 혁명) →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li> </ul>

# IV 3 유럽 세계의 변화

## 2 절대왕정

### 01. 성립 과정과 기반

<b>성립 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18세기에 유럽 각국의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 체제 발전 과정에서 등장</li> <li>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 가는 과도기에 성립</li> </ul>
<b>기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왕을 중심으로 관료제와 ①□□□ 정비, ②□□□□□ 유행, ③□□□□ 경제 정책 실시</li> </ul>

### 02. 서유럽의 절대왕정

<b>에스파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펠리페 2세(재위 1556~1598)</li> <li>: 대서양 무역 장악, ④□□□ 해전(1571)에서 ⑤□□□ 제국을 격파하는 등 성장</li> <li>: ⑥□□□에 무적함대 패배(1588), 가톨릭 강요 정책(⑦□□□□ 독립 초래) 등으로 국력 쇠퇴</li> </ul>
<b>네덜란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인도 회사 설립(1602), 플라카 점령(from ⑧□□□□, 1641)</li> <li>⑨□□□□□ 조약으로 독립 승인(1648)</li> </ul>
<b>영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⑩□□□□□ 1세(재위 1558~1603)</li> <li>: 영국 국교회 확립(⑪□□□□ 반포, 1559),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격파, 동인도 회사 설립(1600)</li> </ul>
<b>프랑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앙리 4세(재위 1589~1610)</li> <li>: 부르봉 왕조 개창, ⑫□□ 칙령 반포(1589), 동인도 회사 설립(1604)</li> <li>루이 14세(재위 1643~1715)</li> <li>: '태양왕' 자처, 중상주의 정책 강화(⑬□□□□ 등용), ⑭□□□□ 궁전 건축(바로크 양식)</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 5px 0;"> <p>왕궁의 건설은 막대한 인력과 돈을 필요로 하였다. 약 4만 명의 근로자가 동원되었고, 이들을 위한 숙소와 식사가 준비되었다. 다리, 팔 또는 허리를 다쳤을 때는 30에서 40리브르 그리고 눈을 다쳤을 때는 60리브르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마침내 왕궁이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이전하였다. 수많은 건물이 만들어졌지만 궁정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비좁은 공간에 부족한 개수의 방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이들은 가까이에서 국왕을 모시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더 많은 방이나 더 넓은 방을 청탁하곤 하였다. 단 한 사람, 루이 14세만이 마음대로 베르사유의 정원, 건물, 공간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⑮□□ 칙령 폐지(퐁텐블로 칙령, 1685)로 인한 위그노의 망명 증가 → 국내 산업 위축</li> <li>: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1701~1713) 등 무리한 전쟁으로 재정난 심화</li> </ul>

### 03. 동유럽의 절대왕정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와 상공업 발달이 부진하여 시민 계급 성장 미약, ⑯□□□ 강화</li> </ul>
<b>프로이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드리히 2세(재위 1740~1786)</li> <li>: '국가 제일의 공복'(⑰□□ 전제 군주) 자처, 산업 장려, ⑱□□□ 궁전 건축(로코코 양식)</li> <li>: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끝에 ⑲□□□□ 차지, 러시아·오스트리아와 함께 ⑳□□□□ 분할 점령(1772)</li> </ul>
<b>오스트리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제프 2세(재위 1765~1790)</li> <li>: 계몽 전제 군주 자처, 귀족의 면세 특권 폐지와 농노 해방 등 내정 개혁 시도</li> <li>프란츠 요제프 1세(재위 1848~1916)</li> <li>: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수립(㉑□□□□□)</li> </ul>
<b>러시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⑳□□□□ 대제(재위 1682~1725)</li> <li>: 서유럽화 정책 추진, ㉒□□□□□□□□를 건설하여 수도로 삼음(1703~1713)</li> <li>: 청과 ㉓□□□□□□ 조약 체결(1689),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1700~1721)에서 승리 → 발트해 진출</li> <li>예카테리나 2세(재위 1762~1796, '황후에서 황제로')</li> <li>: 계몽 전제 군주로 자처하며 내정 개혁 추진, 프로이센·오스트리아와 함께 ㉔□□□□ 분할 점령</li> </ul>

# IV 4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 1 과학 혁명

### 01. 배경과 의미

<b>배경</b>	• 이슬람 과학의 영향, 르네상스 시대의 학문 발전, 정확한 관찰과 실험을 위한 도구(현미경 등) 발명 → 과학적 사고방식 발달
<b>의미</b>	• 16~17세기에 걸쳐 일어난 과학의 발전과 이로 인한 세계관의 변화

### 02. 천문학 및 물리학의 발전

<b>코페르니쿠스</b>	•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1543)에서 ①□□□ 주장 → 기존의 천동설 비판
<b>케플러</b>	• 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형의 궤도로 운행함을 밝힘(①□□□ 수정·발전)
<b>갈릴레이</b>	•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여 ①□□□ 입증
②□□	•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 천체의 운동을 수학 공식으로 나타냄 → 기계론적 우주관 확립 •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프린키피아, 1687)

### ● 지동설의 확산과 루터파

- 하늘, 태양, 달 대신에 지구가 움직이고 있음을 입증하려는 새로운 점성가(코페르니쿠스)의 등장에 관해 나의 스승 루터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주장은 마차나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자가 마치 땅과 나무가 움직이는 동안 자신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나의 생각으로는 이 점성가가 나타나 천문학 이론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성서』에도 기록되었듯이 여호수아는 이 땅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 멈추라고 명하지 않았던가.  
- 안톤 라우터바흐, 『일기』 -
- 루터파 제후인 알브레히트 공작은 비텐베르크의 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신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는 합리적 신념에 따라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옹호하는 가장 중요한 ‘지지자’로 추앙받았으며, 새로운 이론을 따르는 학자들이 『성서』의 해석에 어긋나는 헛된 주장을 퍼뜨린다는 혐의로 교황청에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 웨스트먼, 「멜란히톤 학파, 레티쿠스, 코페르니쿠스 이론에 대한 비텐베르크의 해석」 -

### 03. 의학

<b>하비</b>	• 혈액 순환론 연구, 과학 혁명 본격화, 『심장과 피의 운동에 대하여』(1628) : 혈액 순환의 중심부인 심장을 왕관에 비유 → 청교도 혁명 당시 찰스 1세를 보좌하며 절대왕정 옹호
-----------	--

## 2 근대 철학과 사상의 발전

### 01. 근대 철학

<b>근대 철학의 발전</b>	• 과학 혁명의 영향으로 과학적 사고방식 확산, 정치 이론에 영향
------------------	--------------------------------------

### 02. ③□□ □□□의 확산

<b>배경</b>	• 과학 혁명의 영향으로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의 존재에 대한 믿음 확산
<b>의미</b>	• 자연 상태에 살던 개인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합의나 계약을 맺어 국가와 사회가 등장하였다고 주장 → 자연법사상을 토대로 확산

<b>대표 인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홉스(1588~1679) : 인간이 혼란한 자연 상태를 벗어나려고 상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 절대왕정 옹호</li> <li>• 로크(1632~1704) : 상호 계약으로 수립된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국민은 정부에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4□□□) → 영국의 명예혁명 정당화, 미국과 프랑스의 시민 혁명에 영향</li> <li>• 루소(1712~1778) : 5□□ □□(공공의 선과 이익을 전제로 국가 등이 갖는 보편적 의지)의 형성 주장</li> </ul>
--------------	--

### 03. 계몽사상

<b>배경</b>	• 16~17세기 과학 혁명의 성과와 사회 계약설의 등장
<b>내용</b>	• 이성 중시, 미신과 무지 배격, 불합리한 제도와 낡은 관습 타파를 통해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음 → 18세기 유럽 전역에 확산
<b>대표 사상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볼테르 : 관용의 원리, 신앙과 언론의 자유 강조</li> <li>• 6□□□□□ :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 주장(『법의 정신』, 1748)</li> <li>• 디드로, 달랑베르 등 : 7『□□□□』 편찬(1751~1772) → 계몽사상 확산에 공헌</li> <li>• 8□□ : 일반 의지 강조, 인민 주권의 원리 제시 → 프랑스 혁명에 영향</li> </ul>

#### ● 사회 계약설과 계몽사상의 확산과 발전

- 로크는 절대 왕정을 옹호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비판하고 국민의 저항권을 강조하는 등 자유주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특히 7년 전쟁 이후 영국의 과세 조치에 대한 저항이 조직화되면서 로크의 『시민 정부론』(1689·1690)은 큰 주목을 받았다. 로크의 책이 북아메리카에서 본격적으로 인쇄된 것은 바로 보스턴 차 사건(1773) 무렵이었다. 자유와 사회 계약설에 관한 로크의 주장은 미국 독립 전쟁 당시 제퍼슨 등 주요 인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시민 정부론』의 일부 구절이 미국 독립 선언문에서 직접 인용되었다.
  - 웨버, 『서구의 정치 사상』 -
- 바스티유 함락 직후 『백과전서』는 정치 혁명을 성취한 위대한 저술로 칭송받았다. “『백과전서』는 이성과 통합된 지식이 인간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논증하였고, 장차 프랑스 혁명이 다루어야 할 사회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일반 시민도 국왕, 성직자 등과 동일한 활동을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삼부회에서 대표성의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백과전서』는 새로운 권력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구시대의 낡은 가치를 해체하는 데 일조하였다.”
  - 도네이토, 『백과전서와 혁명의 시대』 -
- 공화주의 전통을 계승한 루소의 일반 의지 이론은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연 상태의 원초적인 평등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기준이다. 일반 의지를 형성하는 데, (법 앞의) 평등만이 사회적 안정과 정치적 구원을 보장할 수 있다. 평등이라는 최고의 기준이 없다면, 일반 의지는 사실상 무의미할 것이다.” …… 특히 프랑스 혁명 당시 자코뱅파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 재분배 등 급진적 개혁을 부르짖을 때마다 루소의 주장과 문구를 인용하곤 하였다.
  - 이즈리얼, 『급진적 계몽사상』 -

### 04. 17·18세기 유럽의 문화

<b>건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세기 : 바로크 양식(공간감과 장식성 강조), 9□□□□ 궁전(1682)</li> <li>• 18세기 : 로코코 양식(섬세하고 우아한 미를 추구), 10□□□ 궁전(‘근심 없는 궁’, 1747)</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b>학문</b>	• 11□□ □□□가 『국부론』(1776)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주장 → 고전 경제학의 토대 마련

### 3 영국 혁명

#### 01. 혁명 전의 영국 사회

<b>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층인 젠트리(gentry)와 도시 시민 계급 성장, ①□□□의 의회 진출</li> <li>• 제임스 1세(재위 1603~1625)의 전제 정치 : 스튜어트 왕조 개창, 왕권신수설을 고수하며 전제 정치 확대, 국교회 강화와 청교도 박해</li> </ul>
-----------	--

#### 02. 청교도 혁명(1642~1649)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 1세(재위 1625~1649) :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하고 청교도 박해 → 의회가 ③□□□□ 제출(1628) → 국왕은 승인 후 의회 해산(1629) →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의회 소집(1640)</li> </ul>
<b>전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 소집된 의회가 국왕의 과세 요구 거부 → ②□□ 1세의 의회 무력 탄압 →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 발생(1642) → ④□□□이 이끄는 의회파 승리 → ②□□ 1세 처형 → ⑤□□□ 수립(1649)</li> </ul>
<b>④□□□의 통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⑥□□□□ 원정(1649), 스코틀랜드 원정(1650)</li> <li>• ⑦□□□ 제정(네덜란드 견제 목적, 1651)</li> <li>• ⑧□□□ 취임(1653) :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금욕적 독재 정치 실시</li> </ul>
<b>왕정복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④□□□의 사망(1658) 이후 왕정복고를 통해 ⑨□□ 2세 즉위(1660)</li> </ul>

재판이 시작되자 ②□□ 1세는 변론을 거부하며, “짐보다 높은 법적 권위란 것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왕권은 신성한 것이므로 짐은 오직 신 앞에서만 책임을 질 뿐 군주의 행위를 심판할 법적 기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변하였다. 이에 맞서 의회는 “잉글랜드의 군주는 독자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국법을 준수하며 통치해야만 하는 제한된 권한을 부여받은 직위이다.”라고 반박하였다. 곧이어 법정은 ②□□ 1세를 내보내고 궤석(闕席)으로 재판을 계속한 끝에 사형을 선고하였다.  
- 로버트슨, 『폭군 살해 개요』 -

#### 03. 명예혁명(1688~1689)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⑨□□ 2세(재위 1660~1685) : 가톨릭교도 우대 정책, 전제 정치 → 의회는 ⑩□□□(1673), 인신보호법(1679) 제정</li> <li>• ⑪□□□ 2세(재위 1685~1688) : ⑩□□□, 인신보호법 무시</li> </ul>
<b>전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의 ⑪□□□ 2세 폐위 → ⑪□□□ 2세의 딸인 메리 공주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메리 2세(재위 1689~1694), 윌리엄 3세(재위 1689~1702)]</li> <li>• ⑫□□□□ 승인(1689)</li> </ul>
<b>결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 중심의 ⑬□□ □□□ 토대 마련</li> </ul>

“지금 윌리엄 공이 수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더블린으로 오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격퇴할 수 있다는 한 가닥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출정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패배한다면, 우리는 상실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의 모든 것을 거는 무모한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연설을 마친 티르코넬 백작은 기병대를 독려하며 적군과 격전을 벌였지만 수세에 몰렸다. 결국 그는 ⑪□□□ 2세에게 “루이 14세의 궁정으로 속히 피신하셔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 맥과이어, 『아일랜드인들의 전기 사전』 -

#### 04. 혁명 이후 영국의 발전

<b>정치 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앤 여왕(재위 1702~1714) :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여 연합 왕국 수립(⑭□□□□)</li> <li>• 조지 1세(재위 1714~1727) : 독일 지역의 하노버가 출신 → 하노버 왕조 개창 :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전통 아래 ⑮□□ □□□ 시행</li> </ul>
--------------	---

# IV 4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 4 미국 혁명

### 01. 17~18세기의 북아메리카

17세기	• 종교의 자유, 경제적 기회를 찾아 영국인들이 이주
18세기 전반	• 동부 해안에 13개의 영국 식민지 건설

### 02. 혁명의 배경

영국의 1□□□□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전쟁(1756~1763)으로 재정난 심화</li> <li>• 식민지에 인지세법(조지 3세, 1765) 등을 통해 각종 세금 부과</li> </ul>
식민지의 저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 거부 운동 전개("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li> <li>→ 3□□□ □ □□(1773) → 영국 정부의 강경 조치(보스턴 항구 폐쇄)</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 <p>영국 정부는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차(茶)법을 제정하는 등 4□□□ □□에 각종 특혜를 부여해 주었다. 이에 분노한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4□□□ □□의 배를 습격하여 차 상자들을 바다에 버렸다.</p> </div>

### 03. 혁명의 전개

제1차 대륙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라델피아에서 식민지 대표들이 영국의 탄압 조치 철회 요구(1774)</li> <li>: 영국의 입법권 부정, 영국 상품 불매 등을 결의하는 선언문 발표</li> </ul>
5□□□ 전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의 무력 충돌(1775) → 독립 전쟁 발발</li> </ul>
제2차 대륙회의 (1775~17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li> <li>• 6□□ □□□(1776. 7. 4.) 발표 : 천부 인권, 주권 재민, 저항권 천명</li> </ul>
독립 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반 열세 → 7□□□, 에스파냐 등의 지원 → 8□□□□ 전투(1781) 승리 → 파리 조약(9□□□□)으로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받음</li> </ul>

### 04. 미합중국의 탄생(1789)

헌법 제정	• 연방주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연방 헌법 제정(1787)
정부 수립	• 10□□□을 초대 대통령(1789~1797)으로 선출
의의	• 프랑스 혁명에 영향

#### ●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

- 자유의 아들들이 동인도 회사 선박의 차 상자들을 폐기하자, 본국 정부는 강경 대응을 공언하였다. 이에 우리는 급히 의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거듭 논의하였다. 이 와중에 런던의 의회에서 보스턴 항구 폐쇄를 골자로 한 폭압적 법안이 결의되었다는 비보를 접하였다. 일순간 우리 모두는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큰 충격에 빠져 꼼짝할 수도 없었다. 결국 우리는 본국의 만행과 횡포를 규탄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하였다.
  - 레이드, 『미국 혁명의 헌정사』 -
- 대륙 회의에서 대의원에 선출된 리처드 헨리 리는 독립을 공식 천명하는 '리 결의안'을 대륙 회의에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3개 식민지의 연합체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이며, 마땅히 그렇게 될 권리를 보유한다. 이 연합체는 영국 왕실에 대한 모든 충성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이제 13개 식민지와 영국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에 일부 비판론자들은 독립 선언이 아직 시기상조이며 외국의 원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결의안이 대륙 회의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자, 제퍼슨은 이를 토대로 독립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 마이어, 『미국의 성서 : 독립 선언문 만들기』 -

## 5 프랑스 혁명

### 01. 혁명의 배경

<b>구제도의 모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직자, 귀족 : 제1, 제2 신분으로 정치적·경제적 특권을 누림</li> <li>평민 : 제3 신분, 인구의 절대다수 차지, 과중한 세금 부담, 정치에서 소외</li> </ul>
<b>시민 계급 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며 부를 축적, 1789년 수용</li> </ul>
<b>정부 재정 위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잡은 전쟁, 미국 혁명에 대한 군사 지원</li> </ul>

### 02. 혁명의 전개(1789~1792)

<b>발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89년 7월(재위 1774~1792)</li> <li>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1789년 소집 → 표결 방식을 둘러싼 각 신분 대표들 간의 대립(제1 신분과 제2 신분은 신분별 표결, 제3 신분은 머릿수 표결 주장) → 제3 신분 대표들의 1789년 8월 구성, '테니스코트의 서약' → 국왕의 1789년 9월 탄압</li> <li>1789년 8월을 구성한 제3 신분 의원 등은 테니스코트에 모여 "우리는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결코 해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라고 결의하였다.</li> </ul>
<b>파리 민중의 봉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89년 7월 함락(1789. 7월) → 혁명의 확산과 농민 봉기</li> </ul>
1789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건제 폐지 선언(8월 법령)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년 8월)」 발표 → 국왕의 국외 탈출 시도 실패(바렌 도주 사건, 1791. 6월) → 1791년 헌법 제정(1791년 9월,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 → 1789년 8월 해산, 1789년 10월 소집(1791. 10월)</li> </ul>
1789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89년 9월과 1789년 10월의 군사적 위협 → 1789년 9월에 선전 포고, 혁명전쟁 발발</li> </ul>

• 재무 총감 네케르의 해임 소식이 7월 12일 오후 파리에 전해지자, 시민들은 이 조치를 보수 세력의 쿠데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마르스 광장 등지로 집결하는 왕실 군대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회의 중인 국민 의회를 해산하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력 언론인인 데몰랭은 연단에 올라 격정적 연설을 이어갔다.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네케르의 해임은 사실상 애국자들을 향한 대학살을 알리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종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밤 국왕의 지시를 받은 군 병력이 시민들을 모두 학살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바로 무기를 드는 것입니다."

- 미네, 『프랑스 혁명의 역사』 -

• 바스티유 함락 이틀 후, 파리 주재 영국 외교관이 본국 외무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혁명이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사상자들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순간부터 프랑스는 자유로운 국가로 되었고, 국왕은 제한적인 군주로, 귀족은 다른 시민들과 사실상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엘저, 『프랑스 혁명 속 영국인들』 -

### 03. 혁명의 급진화

1789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명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식량 부족 → 상켈로트 등 파리 민중의 툴리 왕궁 습격 → 왕권 정치 → 1789년 8월의 1789년 8월 퇴위 공표(1792. 8월)</li> </ul>
1792~17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화정 선포(제1 공화정) → 1792년 1월 처형(1793. 1월) → 온건파인 지롱드파를 누르고 급진파인 자코뱅파가 권력 장악</li> <li>혁명 재판소 설치(1793. 3월 10일), 공안 위원회 설치(1793. 4월 6일)</li> <li>자코뱅 헌법 제정(공화제·보통 선거제 등 규정, 1793. 8월 19일)</li> </ul>
1792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92년 9월 주도 → 혁명 재판소와 공안 위원회를 통해 반혁명 세력 제거</li> </ul>
1792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92년 10월에 대한 반발, 1792년 10월 처형 → 1795년 헌법 제정</li> </ul>
<b>총재 정부 (1795~179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명의 총재가 주도 → 재정난 극복을 위해 대외 정복 전쟁 지속</li> <li>1795년 10월의 이탈리아(1796), 1796년 10월 원정(탐루크 군대와 엠바베 전투, 1798)</li> <li>1799년 10월의 쿠데타(1799)로 붕괴</li> </ul>

25□□□□은 총재 정부에 “26□□□□ 정복 즉시 나는 인도 각지의 군주들과도 동맹을 맺어 27□□□□의 점령지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 그의 정치적 조언자이자 총재 정부의 외무 장관인 탈레랑도 그의 주장을 옹호하며 “28□□□□를 점령하여 지배권을 강화한 이후 우리는 수에즈에서 인도로 15,000명의 병력을 보내 술탄의 부대와 결탁하여 29□□□□군을 축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하였다. 29□□□□을 견제하기 위한 그의 구상은 통령 정부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 이라즈 아미니, 『나폴레옹과 페르시아』 -

04. 혁명의 의미와 영향

<b>의의</b>	•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한 전형적인 시민 혁명 → 시민 사회의 토대 마련
<b>영향</b>	• 자유, 평등, 우애의 정신 확산 →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

6 25 □□□□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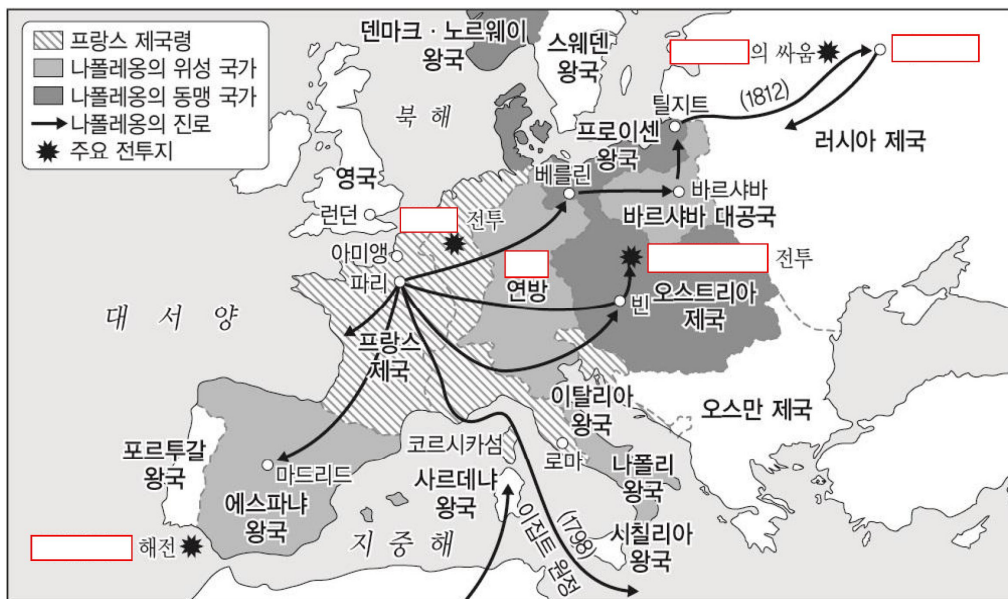
01. 26 □□ □□(1799~1804)

<b>집권</b>	•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로 권력 장악(1799)
<b>대외 정책</b>	• 27□□□□□□ 격파(마렝고 전투), 영국과 휴전 → 대프랑스 동맹 와해(1802)
<b>내정 개혁</b>	• 프랑스 은행 설립(1800), 국민 교육 제도 정비, 28『□□□□ □□』 편찬(1804)

02. 29 □□ □□(1804~1815)

<b>성립</b>	• 국민 투표를 통해 황제 즉위(노트르담 대성당, 1804)
<b>유럽 제패</b>	•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30□□□□에 패배(1805) • 오스트리아-러시아 등에 승리(아우스터리츠 전투, 1805) • 31□□ □□ □□ 해체(1806) → 라인 동맹 결성
32□□ □□□□	• 30□□□□과의 통상 금지(1806) → 33□□□□가 이를 지키지 않고 30□□□□과 통상
33□□□□ <b>원정</b>	• 보로디노 전투(1812. 9월) → 모스크바를 점령하였으나 34□□□□의 후퇴 전술, 기습 등으로 패배
<b>몰락 과정</b>	• 대프랑스 동맹군과의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1813) → 폰텐블로 조약에 따라 황제직 퇴위(1814) • 엘바섬 유배(1814) → 탈출 → 재집권 → 35□□□□ 전투에서 패배(1815)

36 37 □□□□ 시대의 유럽



03. 유럽 정복 전쟁의 영향

<b>혁명 이념 전파</b>	• 자유주의 이념의 확산 → 구체제에 대한 저항
<b>민족주의 확산</b>	•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저항 의식 →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 고양

# IV 4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1 1 □ 체제와 자유주의의 확산

01. 1 □ 회의(1814~1815)

<b>목적</b>	•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 처리와 유럽의 질서 회복
<b>참가국</b>	• 오스트리아의 2 □ □ □ □ 주도로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이센, 러시아, 프랑스 등 유럽 각국 대표단이 참가
<b>기본 원칙</b>	•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3 □ □ □ □ □ 이전으로 되돌리려 함(정통주의, 복고주의) • 4 □ □ 동맹·4국 동맹 등 결성 →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 탄압

- 러시아는 바르샤바 대공국 대부분을 차지한다.
- 5 □ □ □ □ 은 작센 지방 영토 5분의 3을 차지하며, 바르샤바 대공국의 일부(포젠 대공국), 단치히, 라인란트 등지를 얻는다.
- 옛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을 정리하여 38개의 영방 국가를 모아 독일 연방을 창설한다. 연방의 의장은 6 □ □ □ □ 황제가 맡는다.

02. 각국의 자유주의·민족주의 운동

<b>독일 지역</b>	• 학생 조합(부르셴샤프트)의 활동(1815)
7 □ □ □	• 8 □ □ □ 제국에 맞서 독립운동 전개(1821~1829) →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정부와 유럽 지식인들의 지원으로 독립
9 □ □ □	• 데카브리스트의 봉기(12월의 당원, 입헌 군주제 요구, 1825)
<b>이탈리아</b>	• 1 □ □ □ □ □ (단) 조직(민족 통일, 자유주의 개혁 지향, 1806)
<b>라틴 아메리카</b>	• 1 □ □ □ □ 의 지배에 맞서 독립운동 전개, 미국의 지지(2 □ □ □ □, 1823)

2 □ □ 대통령이 밝힌 외교 방침으로,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 원칙, 유럽의 아메리카에 대한 불간섭 원칙 등을 천명하였다. 2 □ □ □ □ 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 선언을 비판하였다.

2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01. 3 □ □ 혁명(1830)

<b>배경</b>	• 나폴레옹 몰락 이후 부르봉 왕조 부활[루이 18세(재위 1815~1824)] • 4 □ □ □ □ (재위 1824~1830)의 보수적 전제 정치 : 강경 왕당파 인사를 수상에 임명 : 7월 칙령(5 □ □ □ 제한, 언론 자유 억압, 의회 해산)
<b>전개</b>	• 자유주의자 등 파리 시민의 봉기 → 6 □ □ □ □ 추방(부르봉 왕조 붕괴)
<b>결과</b>	• 6 □ □ □ □ 를 국왕으로 추대하여('시민 왕') 입헌 군주제 수립(7 □ □ □ □) • 1814년 헌법 개정(법 앞에 평등·언론 검열 폐지·삼색기 재도입 등, 1830. 8월)
<b>영향</b>	• 8 □ □ □ 독립(from 네덜란드 연합 왕국), 유럽 각지의 자유주의 운동 자극

02. 1848년 혁명(1848)

<b>배경</b>	• 산업화로 노동자 계층 성장, 부유한 소수의 시민에게만 1848년 부여
<b>전개</b>	•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가 1848년 확대를 요구하며 봉기
<b>결과</b>	• 1848년 2월 봉기 → 2월 24일 수립 → 2월 24일 1848년 대통령이 선출
<b>영향</b>	• 오스트리아에서 혁명 발생(2월 1848년 실각 → 1월 체제 붕괴) • 프로이센 등 유럽 각지에서 자유주의·민족주의 운동 전개

1848년 2월 24일이 영국으로 망명한 직후 2월 24일 1848년은 임시 정부에 다음과 같은 서한을 발송하였다. “파리 시민들의 영웅적인 행위로 외세 침략의 마지막 가능성마저 무너졌습니다. 저는 공화정의 깃발을 품고 파리로 돌아왔으며, 조국을 위해 온전히 복무하겠다는 열망 이외에는 어떠한 정치적 야심도 없습니다. 저의 이런 각오를 임시 정부의 각료들에게 알려드리며, 장차 구성될 새로운 정부의 대의명분을 위해서도 헌신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 마크래, 『나폴레옹 3세의 생애』 -

03. 프랑스의 정치적 변화

<b>22년 1852~1870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24일 1848년의 황제 즉위(나폴레옹 3세)</li> </ul> <p>오늘 20여만 명이나 되는 리옹 시민들께서 나폴레옹의 기마상 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찍이 그의 통령 취임에 경의를 표하였고, 제1 제정의 수립에 환호하였으며, 엘바섬에서 탈출한 그가 귀환했을 때 제일 먼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 또한 자유로운 국민 투표를 통해 저를 나폴레옹의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제가 리옹으로 오는 동안 각지에서 “황제 폐하 만세!”라는 만장일치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제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충복으로서, 위대한 프랑스의 재건과 번영을 위해 헌신할 것임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 나폴레옹 3세, 「9월 20일 리옹 연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1848년·프랑스 전쟁에서 패배 → 2월 24일 1848년 붕괴 → 제3 공화국 수립</li> </ul>
<b>24년 1871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이센에 항복한 정부에 맞서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이 봉기하여 자치 정부 수립</li> <li>• 독일 제국의 지원으로 프랑스 정부군이 무력으로 진압</li> </ul>

3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b>특징</b>	• 1832년이 주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b>종교적 차별 폐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28년 폐지(1828) : 비국교도에게 공직 허용</li> <li>• 가톨릭 해방법 제정(1829) : 가톨릭교도에 대한 차별 대부분 철폐</li> </ul>
<b>선거법 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선거법 개정(1832년)</li> <li>: 1832년 2월 폐지, 도시의 상공업자에게 선거권 부여, 1832년은 선거권 제외</li> </ul> <p>제1차 선거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1832년 2월 폐지되었다. 귀족이 통제하던 선거구들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하원의 위상은 강화되었다. 몇몇 귀족은 “장차 정부가 임의로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원 의원들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하였다. 웰링턴 공작도 “1832년 선거법 개정으로 상원이 주도하던 헌법 질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상원의 독자적인 심의 권한과 대상은 결국 종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탄하였다. - 메이, 『영국 헌정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32년 운동</li> <li>: 노동자 계층이 보통 선거와 비밀 투표 등을 요구하는 1832년 발표(1838), 선거법 추가 개정 요구</li> </ul>
<b>자유주의 경제 개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46년 폐지(1846), 1849년 폐지(1849) → 자유주의 경제 체제 확립</li> <li>• 산업화의 과정에서 전 세계로 세력을 팽창하며 제국 건설</li> </ul>

# IV 4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 4 민족주의의 확산과 국민 국가의 발전

### 01. 이탈리아의 통일

<b>통일 전의 상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왕국과 교황령 등으로 분열</li> <li>• 프랑스 자유주의 혁명의 영향을 받은 ①□□□가 청년 이탈리아당의 혁명 운동 전개(1831~) → 실패</li> </ul>
<b>사르데냐 왕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재위 1849~1861~1878) 주도</li> <li>• 재상 카보우르(1810~1861)가 ②□□□□ □□의 지원으로 ③□□□□□와 전쟁에서 승리 →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의 통합</li> </ul>
<b>왕국의 수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④□□□□(1807~1882)가 의용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남부 원정 → 시칠리아와 나폴리 등지를 점령 → ⑤□□□□ □□에 헌납 → 이탈리아 왕국 수립(1861)</li> </ul>
<b>왕국의 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⑥□□□□ 병합(1866), 로마 교황령 점령(1870)</li> </ul>

### 02. 독일의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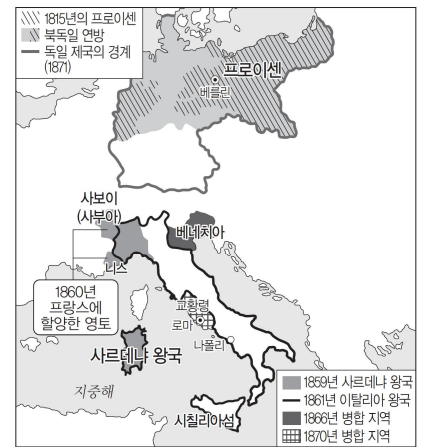
<b>통일 전 상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개의 영방 국가, 4개의 자유시로 분열</li> <li>• ⑦□ 체제(1815~1848)에 따라 독일 연방 창설</li> </ul>
<b>통일의 움직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이센 주도의 ⑧□□ □□ 체결(1834) → 독일 지역의 경제적 통합 추구</li> <li>• 프랑스 ⑨□□ 혁명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자들 중심으로 통일 방안 논의 : ⑩□□□□□□ 국민 의회(1848~1849) → 합의 실패</li> </ul>
<b>프로이센 중심의 통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상 ⑪□□□□□□(1815~1898)의 철혈 정책 → 군비 증강</li> <li>• 프로이센·⑫□□□□□□ 전쟁(1866) 승리 → 북독일 연방 결성(1867)</li> <li>• 프로이센·⑬□□□□□□ 전쟁 승리 → ⑭□□□□·□□ 지방 획득, 빌헬름 1세(1861~1871~1888)가 독일 제국 황제로 즉위(베르사유 궁전, 1871)</li> </ul>

• 6월경 시칠리아를 방문한 미국 작가 헨리 애덤스는 가리발디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남겼다. “가리발디는 자신이 시칠리아의 지배자가 되었음을 사르데냐 왕국 국왕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다. 곧이어 그는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팔레르모로 진격하여 공격을 감행하였고, 수많은 주민이 그를 열렬히 지지하며 봉기하였다. …… 결국 팔레르모 장악 이전에 새로운 부대가 충원되자, 나폴리 왕국의 군대와 군함은 모두 항복하거나 철수하였다.”

- 레벤슨, 『헨리 애덤스의 서한들』 -

• 나폴레옹 3세의 퇴위 이후 공화정의 행정 수반이 된 티에르는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였다. 그는 “군사적 요충지인 벨포르를 결코 양도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비스마르크는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 독일 제국의 군대가 상젤리제 거리에서 승전 축하 시가 행진을 벌이고, 정식 조약이 비준될 때까지 파리 근교에 주둔한다.”라는 조건으로 벨포르를 양보하였다. 티에르는 의회에 “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 카스트리, 『티에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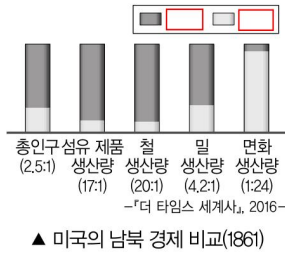


▲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 『더 타임스』 세계사, 2016 -

### 03. 미국의 발전

<b>영토 확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 후 서부 개척 등으로 19세기 중엽 태평양 연안까지 도달</li> </ul>
<b>남북 전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 : 영토 확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북부와 남부 사이의 경제적 차이와 대립 심화</li> <li>• 전개 : ⑮□□의 대통령 당선(1860) → 남부 여러 주의 연방 탈퇴 → 남북 전쟁 발발(⑯□□□□년) → 노예 해방 선언(⑰□□□□년) → 게티즈버그 전투(1863) → 북부의 승리(1865)</li> </ul>
<b>전쟁 이후 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 이후 발전 : 국민적 단합을 도모하며 산업화 정책을 추진, 대륙 횡단 철도 개통(1869)</li> </ul>



이 그림은 남북 전쟁의 대결 구도를 잘 보여 준다. 곧 부러질 듯한 나뭇가지(연방을 상징)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우측 인물(북부를 상징)이 좌측 인물(남부를 상징)과 절벽 끄트머리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 남북 전쟁 풍자화

#### 04. 러시아의 발전

<b>19세기의 상황</b>	• 차르의 전제 정치와 농노제 지속
<b>데카브리스트의 난</b>	•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와 일부 지식인('12월 당원')이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며 봉기(1825) → 니콜라이 1세(재위 1825~1855)의 진압으로 실패
<b>남하 정책</b>	• 유럽과 아시아로 영토 확장 추진 • 1813년 전쟁(↔ 오스만, 1853~1856)의 패전으로 흑해 방면으로의 남하 좌절
<b>알렉산드르 2세</b>	• 1861년 1월 19일(1861) 등 내정 개혁 단행
<b>20세기 운동</b>	• 지식인들이 농민 계몽을 통한 사회 개혁 운동 주도('20세기 운동'은 '민중 속으로'라는 의미) → 실패 → 급진적 성향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알렉산드르 2세 암살(1881) → 알렉산드르 3세의 전제 정치 강화

#### ● 노예 해방 선언과 농노 해방령

-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 이후 프랑스의 여론은 연방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프랑스는 러시아, 영국과 함께 남북 전쟁 종식을 위한 공동 중재안을 워싱턴에 제시하였다. 휴전 제안 배경으로 "남부 연합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전쟁이 유럽 면화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 등이 언급되었다. 당시 나폴레옹 3세는 "6개월간 잠정적 휴전을 통해 남부 연합의 주요 항구를 즉각 개방해야 한다. 이로써 양측 간의 유혈 사태가 종식되고, 일체의 교전 행위도 재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문명화된 세계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만일 북부가 우리 제안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남부 연합의 실체를 용인하고 내전에 개입할 정당한 명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 캐롤, 『앙리 메르시에와 남북 전쟁』 -

- 러시아의 인텔리겐치아(지식인)는 크림 전쟁의 패배를 개혁과 근대화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르 2세의 동생 콘스탄티누스 대공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패전으로 우리는 러시아가 다른 강대국보다 쇠약하고 빈곤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더욱이 농노제 등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행정 운영에서 그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각종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리벤, 『니콜라이 : 모든 러시아인들의 황제』 -

### 5 산업 혁명

#### 01. 산업 혁명의 배경

- 신항로 개척 이후 상업 혁명, 인구 증가 → 상품 수요의 급증 → 선대제,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 체제 등장

#### 02. 영국의 산업 혁명

<b>배경</b>	• 인구 증가와 식민지 쟁탈전 승리로 국내 시장과 광대한 해외 시장 확보 • 제2차 18세기 운동 이후 여러 도시에 풍부한 노동력 유입 • 새로운 공업 발전에 필요한 철과 석탄 등 지하자원 풍부
<b>기술·동력 혁명</b>	• 면직 공업 발달 : 면직물 수요 증대 → 방직기와 방적기의 개량 → 기계화 촉진 • 제임스 와트의 2차 개량 : 면직업, 제철업 등에서 동력원으로 사용
<b>교통의 발달</b>	• 1825년의 증기 기관차 '로켓 호' 개발(1829) → 리버풀~맨체스터 간 철도 개통(1830)

03. 산업 혁명의 확산과 결과

<b>확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세기 전반(벨기에, 프랑스) → 19세기 후반(미국, 독일, 일본 등)</li> </ul>
<b>결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 방식의 변화 : ④□□□ □□ 공업 발달</li> <li>통신의 발달 : ⑤□□(1791~1872)의 유선 전신 발명(1837) → 세계 최초의 전신 개통(1844)</li> <li>새로운 계급의 출현 : 산업 자본가(생산 수단 및 자본 소유), 임금 노동자 등장</li> <li>도시화와 도시 문제 발생 : 도시 수 및 도시 인구의 증가 → 주택, 위생 등 도시 문제 발생</li> <li>노동 문제 발생 : 저임금·장시간 노동, 아동·여성 노동 문제 등</li> </ul>

04.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b>리다이트 운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노동 강도 증가, 임금 체불 등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⑥□□□□ 운동(1811~1817)</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피시벌 총리여, 셔우드의 용감한 아들들이 불의를 응징하기로 결의하였소. 우리는 의회가 노동자들의 곤궁함을 덜어주길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으나, 타협의 손길은 차단당했고 핍박받던 가련한 우리 고장에는 이제 한 줄기 희망의 빛조차 사라지고 말았소. ⑥□□□□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은 그저 경멸스러울 따름이오. ……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희생된다면! 피에는 피로 맞설 것이오!</p> <p style="text-align: right;">- 러드 장군으로부터 -</p> </div>
<b>노동 운동의 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운동 : 노동자들이 참정권 등 정치적 권리 주장</li> <li>노동조합 결성 :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 요구</li> </ul>
<b>사회주의의 출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화로 인한 빈부 격차 심화와 열악한 노동 현실 → 자본주의의 문제점 비판, 평등 사회 주장</li> <li>⑧□□□, 생시몽, 오언 : 초기 사회주의자들, 경쟁 대신 협동을 강조하며 이상적인 공동체 구상</li> <li>마르크스, 엥겔스 : ‘과학적 사회주의’ 주장(자본주의 체제 작동의 과학적 해명 시도)</li> </ul>
<b>사회주의의 확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⑨□□□□년)] 등에서 사회주의 정당 출현</li> <li>19세기 후반 사회 민주주의 등장</li> <li>국제적인 노동 운동 전개 →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 결성(1864)</li> </ul>


# V 1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 1 제국주의의 등장과 세계 분할


### 01. 제국주의의 의미와 특징

<b>의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세기 후반 열강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①□□□ 건설을 추진한 정책</li> </ul>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확대(값싼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 잉여 자본의 투자처 필요)</li> <li>침략적 민족주의, ②□□ □□□(제국주의 국가의 약소국 침략 정당화), 인종주의(백인의 우월성 주장)</li> </ul>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이론으로, 열등한 인종과 사회는 도태하고 우월한 인종과 사회는 번영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제국주의 열강의 대외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백인의 책무를 다하라 / 야만적인 전쟁을 평화로 바꾸고 / 기아로 허기진 입들을 먹이기 위해 / 질병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 그리고 네가 너의 목적을 달성할 때쯤 / 너를 원하는 다른 미개인들을 위해 / 다른 원주민들과 이교도에게로 시선을 돌려라.</p> <p style="text-align: right;">- 러디어드 키플링, 「백인의 짐」 -</p>

### 02.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b>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에즈 운하 관리권 차지, 이집트 보호국화, 남아프리카 연방 조직</li> <li>종단 정책</li> </ul> <p>: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이어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연결 추진</p>
<b>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제리 장악, 튀니지 보호령화, 마다가스카르 차지</li> <li>5□□ 정책</li> </ul> <p>: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를 이어 아프리카를 동서로 연결 추진 → 6□□□ 사건(5□□□과 충돌, 1898)</p>
<b>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메룬, 토고, 7□□□령 남서 아프리카, 7□□□령 동아프리카 등 차지</li> <li>8□□□□를 둘러싸고 4□□□□와 대립[8□□□□ 사건, 탕헤르(1905)·아가디르(1911)]</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p>7□□□령 동아프리카는 오늘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지역 등을 포함한 7□□□의 아프리카 식민지였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7□□□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모든 식민지를 상실하였고, 국제 연맹의 결정에 따라 영국, 벨기에 등에 배분되었다.</p> </div>
<b>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아프리카의 콩고를 식민지로 삼음</li> </ul>
<b>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말리아, 리비아 등을 식민지로 삼음</li> </ul>

### 6□□□ 사건



이 그림은 5□□□을 상징하는 불독(그림 왼편)이 위협하자 4□□□□를 상징하는 푸들(그림 오른편)이 움츠리는 모습을 8□□□□ 사건에 비유한 풍자화이다. 8□□□□ 사건은 1898년 3□□□□과 4□□□□□가 8□□□□□에서 충돌한 일을 말한다.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추진하던 4□□□□□는 1898년 7월 8□□□□□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펼치던 5□□□□ 역시 같은 해 9월 8□□□□□에 진출하여 4□□□□□군에게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두 나라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양국은 외교적 타협을 통해 전면전을 피하였고, 4□□□□□의 양보로 5□□□□□은 8□□□□□를 장악하였다.



# V

## 1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 2 중국의 문호 개방

#### 01. 대외 무역의 변화

<b>1842년 무역 체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은 1842년 한 곳만 서양과의 무역 항구로 개방, 1842년을 통한 교역만 인정 → 대영 무역에서 차 수출로 막대한 양의 은이 유입됨</li> </ul>
<b>영국의 삼각 무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 무역 요구 → 청의 거절 → 영국은 청과의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도의 1842년을 청으로 밀 무역(삼각 무역) 영국은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하고 차를 수입하여 무역 적자가 계속되자 인도의 1842년을 중국에 밀수출하는 삼각 무역을 시행하였다.</li> </ul>

#### 02. 제1차 1840~1842년 전쟁 · 제2차 1856~1860년 전쟁과 중국의 문호 개방

<b>1차</b>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의 삼각 무역 추진 → 은 유출로 인한 청의 재정 파탄, 1842년 중독자 증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심각한 사회 문제 발생 → 1842년이 광저우의 1842년을 몰수하여 폐기하고 영국 상인의 1842년 무역 금지</li> </ul>
	<b>경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이 군함을 파견하여 청 공격 → 영국 승리</li> </ul>
	<b>결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42년 조약 체결(1842) : 5개 항구 개방, 영국에 1842년 함양, 1842년 무역 폐지, 전쟁 배상금 등 규정 → 중국의 문호 개방, 이후 추가 조약 체결(영사 재판권 인정, 최혜국 대우 규정)</li> </ul>
<b>2차</b>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의 무역 확대 요구 → 청의 거절 → 1856년 사건과 1856년 선교사 피살 사건 발생</li> </ul>
	<b>경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과 1856년 연합군이 1856년과 1856년 점령</li> </ul>
	<b>결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58년 조약(1858) : 1858년에 외교관 주재, 10개 개항장 추가, 1858년 포교의 자유 인정 등 규정 제8조 개신교나 로마 가톨릭교는 선행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며, 사람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도록 한다. 제11조 덩저우, 타이완 등에서도 앞으로 영국 상인은 어떤 사람과도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 있고, 선박과 상품이 수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li> <li>• 1860년 조약(1860) : 1858년 조약의 비준, 영국에 주룽반도 일부 할양, 1860년의 연해주 획득 등</li> </ul>

### 3 중국의 근대화 운동

#### 01. 태평천국 운동(1851~1864)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51년 전쟁을 계기로 청 왕조의 권위 추락, 배상금 지불로 인한 농민의 조세 부담 가중, 물가 폭등으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 → 반청(反淸) 감정 고조</li> </ul>
<b>전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51년이 크리스티교 신앙을 바탕으로 1851년 조직 → 거병, '별만홍한' 등을 주장 → 태평천국을 건설하고 1853년 수도로 삼음(1853)</li> </ul>
<b>개혁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53년 제도(토지 균등 분배의 토지 개혁 지향, 남녀평등 등)</li> <li>• 전족, 변발, 아편 금지 등 발표</li> </ul>
<b>결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인 관료와 1853년 주도로 조직된 향응의 반격, 서양 열강의 청 왕조 지지(상승군(常勝軍)), 태평천국 내부의 분열로 실패</li> </ul>

● 10 (上帝會)

10의 교리를 바탕으로 만든 종교 결사로, 사유 재산을 부정하고, 빈부의 차이를 두지 않는 평등주의와 남녀평등을 주장하였다. 이 결사를 창시한 10은 자신을 하느님 즉 상제의 아들이며 예수의 동생이라고 여겼다.

02. 11운동(1861~1894)

<b>배경</b>	• 11 전쟁과 태평천국 운동 진압 과정에서 개혁의 필요성 인식
<b>주도</b>	• 태평천국 운동 진압에 앞장선 증국번, 이홍장 등 한인 관료
<b>전개</b>	• 11 '11'을 바탕으로 부국강병 추구 : 근대적 공장 설립, 군수 산업 육성(금릉 기기국 설립 등), 서양식 육·해군 창설 : 신식 학교 설립, 해외 유학생 파견 등
<b>결과</b>	• 중앙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부족, 기업 활동에 대한 관료의 지나친 간섭 → 청일 전쟁(1894~1895)의 패배로 한계 노출

03. 12운동(1898)

<b>배경</b>	• 청일 전쟁의 패배로 일본과 12 조약 체결(1895, 일본에 타이완 할양, 막대한 배상금 지불), 열강의 각종 이권 침탈 심화, 12운동의 실패에 대한 반성
<b>주도</b>	• 강유웨이, 12 등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는 개혁적 성향의 지식인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변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옛것을 지키자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기존의 관행만을 따라 제도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앉아서 바라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어 그 안에서 바뀌 보려는 움직임도 보여 주지 않는다. …… 스스로 변하려 해서 변하는 자는 변화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어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고, 윤리 도덕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려 하다가 결국 마지 못해 변하는 자는 변화의 권한이 남에게 있어 그에 의해 속박되고 그에 의해 좌우된다. …… 그러므로 변화의 길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일본처럼 스스로 변하는 것이다. 둘째, 오스만 제국처럼 타인이 그 권한을 장악하여 대신 변하는 것이다. 셋째, 인도처럼 한 국가에 합병되어 대신 변하는 것이다. 넷째, 폴란드처럼 여러 나라에 의해 분할되어 대신 변하는 것이다. 길하고 흉한 것, 물러서고 나아가는 갈림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 12, 『변법통의(變法通義)』 -                 </div>
<b>전개</b>	• 일본의 13을 본떠 정치 제도 개혁 주장 → 과거제 개혁, 신교육 실시, 상공업 육성 등 근대적 개혁 추진(무술변법)
<b>결과</b>	• 기득권을 위협받은 서태후 등 보수 세력의 탄압으로 실패(12)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1898년 14 운동에 반대하던 서태후와 그녀를 따르는 보수파가 합심하여 황제인 광서제(재위 1875~1908)를 유폐하고 개혁 세력을 숙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강유웨이와 12는 체포령을 피해 일본에 망명하였다.                 </div>

04. 15운동(1899~1901)

<b>배경</b>	• 열강의 이권 침탈 심화(광산 채굴권·철도 부설권 등 차지, 조차지 설정) • 11 확산으로 배외 감정 고조
<b>전개</b>	• 15이 산둥에서 봉기, 16 '11' 주장, 교회와 철도 등 서양 문물 파괴, 청 왕조의 후원(외세 배척에 이용) • 11의 외국 공관 습격, 이를 계기로 8개국 연합군(러시아,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15진압 → 열강의 11 점령
<b>결과</b>	• 17조약(11 의정서) 체결(1901) → 외국군의 11 주둔 인정 등

● 27 조약

- 청은 열강에 4억 5천만 냥을 배상한다.
- 청은 ㉑□□□에서 산하이관까지 철도를 따라 주요 거점에 열강의 군대 주둔을 허용한다.
- 청은 외세에 반대하는 모든 조직과 활동을 단속한다.

05. 광서신정(光緒新政) 추진

<b>배경</b>	• 보수 세력이 개혁의 필요성 인식
<b>내용</b>	• 신식 군대 편성, 과거제 폐지, 신식 학교 건립, 산업 진흥 등의 개혁 추진 • ㉒「□□ □□ □□」선포(1908)

06. ㉓□□□□(1911)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 왕조 타도를 목표로 한 혁명 운동 확산</li> <li>• ㉔□□(1866~1925)의 혁명 운동 : 중국 동맹회 결성(1905, 일본 도쿄), 삼민주의 주창</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외국에서 망명 생활하면서 삼민주의를 구상한 ㉔□□은 1905년에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 화교들을 중심으로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고, 반청 혁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1년 ㉕□□□□ 이후, 1912년 1월 1일에 수립된 ㉖□□□□의 임시 대통령이 되었으나, ㉗□□□□에게 대통령직을 양보하였다. 이후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㉘□□□□가 사망하자 귀국하여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였다.</p>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삼민주의는 ㉔□□이 제창한 중국 혁명의 기본 이념으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말한다. 민족주의는 만주족 왕조의 타도, 민권주의는 ㉙□□□□ 실시, 민생주의는 민생 안정을 의미한다.</p> </div>
<b>전개</b>	• 청 정부의 철도 국유화 조치 →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 전개 → 쓰촨 봉기 발생 → 우창에서 신군 봉기(1911. 10. 10.) → 각 성의 독립 선언
<b>결과</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㉖□□□□ 수립(1912, ㉚□□□)</li> <li>② 임시 대통령에 ㉛□□ 취임 → ㉜□□□□□□와 혁명군의 타협</li> <li>③ 청 왕조의 멸망</li> <li>④ 임시 대통령에 ㉝□□□□□□ 취임(1912. 3.)</li> <li>⑤ 초대 대통령에 ㉞□□□□□□ 취임 → 혁명파를 탄압하고 황제 제도의 부활 시도(1913~1915)</li> <li>⑥ ㉞□□□□□□ 사후 ㉟□□□□ 시대 전개(1916)</li> </ol>

07. ㊱□□□□ 운동

<b>배경</b>	• ㊲□□□□□□가 제제운동(帝制運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자 숭상 등 문화 복고 분위기 확산
<b>내용</b>	• 유교 중심의 전통문화 비판,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의 수용 주장 • 천두슈, 후스 등이 주도, 잡지 ㊳『□□□』 간행

# V 2 두 차례의 세계 대전

## 3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 01. 중국의 민족 운동

<b>1□·□ 운동 (1919)</b>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화 운동 확산</li> <li>• 2□□ □□ □□ 결정(독일이 갖고 있던 3□□반도의 이권 회수를 요구한 중국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음)에 반발</li> </ul>
	<b>전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 철폐, 5□□반도의 이권 반환 요구 → 반봉건, 반군벌,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발전</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오호라! 국민 여러분! 가장 친애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혈기를 지닌 우리 동포 여러분! ..... 악몽과 같은 소식이 전해져 오니 하늘색조차 캄캄합니다. 무릇 베르사유 평화 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에 정의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리가 있다고 한 것이 어찌 아니었겠습니까? 4□□□를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이나 군사 협정뿐만 아니라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입니다.</p> </div>
<b>제1차 국공합작 (1924~192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당원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하는 방식의 연대 → 5□□ 타도 목적, 반제국주의 운동 전개</li> </ul>	
<b>국민 혁명 (1926~192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타도와 국민 혁명을 추진하던 6□□ 사망(1925)</li> <li>• 7□□□의 실권 장악, 8□□ 개시(1926) → 공산당 탄압(1927) → 제1차 국공합작 결렬</li> <li>• 9□□□을 점령하여 8□□ 완성(1928)</li> </ul>	
<b>10□□□ (1934~193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당이 루이진에 소비에트 임시 정부 수립(1931) → 7□□□의 국민당이 공산당 토벌 작전 전개 → 공산당이 10□□□ 단행(1934), 옌안 방면으로 이동</li> </ul>	
<b>제2차 국공합작 (1937~194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사건(1936)을 계기로 내전 중단과 항일 투쟁 분위기 고조</li> <li>• 12□□ 전쟁 발발(1937) 직후 합작 성사, 장기적인 항일 전쟁 전개</li> </ul>	

# VI 1 냉전과 탈냉전

## 2 냉전의 해체와 세계 질서의 재편

### 01. 중국의 변화

<b>국공 내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대결(1946~1949)</li> <li>• 중국 공산당 승리 →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1949. 10.) : 토지 개혁, 산업의 국유화 등 ❶□□□ 경제 개혁 단행</li> </ul>
<b>2□□□ 운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오쩌둥 주도, ❸□□ □□를 조직하여(1958) 농업 집단화 추구</li> </ul>
<b>문화 대혁명 (1966~197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오쩌둥이 ❹□□□을 앞세워 류사오치, 덩샤오핑 등 반대파를 몰아냄</li> <li>❹□□□은 문화 대혁명 당시 동원된 준군사 조직으로 대학생과 10대 학생 등으로 구성되었다. 마오쩌둥의 반대파나 부르주아적이라고 간주한 인물들을 공격하고 문화재를 파괴하였다.</li> <li>• 중국의 전통문화 파괴 등의 문제 발생</li> </ul>
<b>개혁·개방 정책 (197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❺□□□□(1904~1997) 주도</li> <li>: 시장 경제 체제 일부 도입, 동남 해안 지대에 ❻□□□□ 설치 → 경제성장</li> <li>: 빈부 격차, 관료의 부정부패 심화 등 부작용 발생</li> <li>• 미국과 국교 수립(7□□□□년)</li> </ul>
<b>텐안먼 사건 (8□□□□, 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과 지식인들이 텐안먼 광장에서 부정부패 추방과 정치 민주화 요구</li> <li>• 공산당 지도부에 의해 진압</li> </ul>

# V 1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 4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

### 01. ①□□ 막부의 개항

<b>배경</b>	• 미국 페리 제독의 무력 시위
<b>개항 조약의 체결</b>	• 미일 화친 조약(1854) : 시모다·하코다테 개항, 최혜국 대우 인정 • 미일 수호 통상 조약(1858) : 나가사키 등 추가 개항, 영사 재판권 인정, 협정 관세

### 02. ②□□□ □□(1868~1912)

<b>전개</b>	• 사쓰마번과 조슈번 중심의 막부 타도 운동 전개 → 막부 붕괴, 왕정복고 → ②□□□ 정부 수립
<b>개혁 정책</b>	• 에도의 명칭을 도쿄로 고치고 수도로 삼음 • ③□□□□(지방 제도 정비 → 중앙 집권 체제 수립, 1871) 단행 • 근대적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 확립, 상공업 육성, 근대적 공장 설립 • 봉건적 신분제 개혁(④□□□□), 서양식 교육 제도와 의무 교육 도입, 유학생 파견 • 징병제(1873), 신도의 국교화, 우편 제도 실시, 철도 부설 등
<b>대외 관계</b>	• 이와쿠라 구미 사절단 파견(1871~1873)
<b>성격</b>	•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서구화를 지향하는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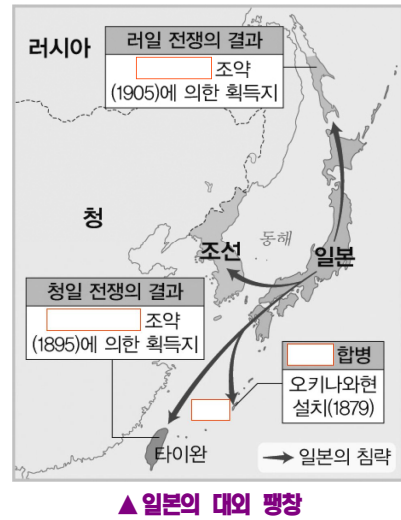
### 03. 자유 민권 운동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70년대부터 시작, 헌법 제정과 서양식 의회 설립 주장</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무릇 정부에 대해 조세를 낼 의무가 있는 인민은 그 정부의 일에 간여하여 찬반을 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하의 통설이니 우리가 이에 대해 이래저래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무릇 강한 정부는 어떻게 해서 강해졌겠습니까. 천하 인민이 모두 한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 지금 민선의원(民選議院)을 설립한다면 정부와 인민 사이에 소통이 되고 서로 일체가 되어 국가가 비로소 강하게 될 것이며 정부도 비로소 강하게 될 것입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이지 정부의 탄압</li> </ul>
<b>결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이지 정부 → 일본 제국 헌법 공포(⑤□□□□년), 제국 의회 개설(1890)</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제1조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누구라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 의회의 협조를 받아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p> </div>

### 04. 대외 팽창 정책

<b>⑥□□□</b>	• 새로운 외교 관계 수립을 거부하던 조선에 대한 정벌 주장(1868~1870) → 실행 보류
<b>대외 침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이완 출병(1874), ⑦□□ 병합(1879)과 오키나와현 설치</li> <li>• 청일 전쟁(1894~1895) :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청과 충돌</li> <li>• ⑧□□□□□ 조약(1895. 4월) : 청일 전쟁 승리 이후 체결</li> </ul>

<b>대외 침략</b>	: 타이완, 랴오둥반도 차지 → ㉠□□ □□과 랴오둥반도 반환
	<p>㉠□□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세력 확대를 우려하여 ㉠□□, ㉡□□□□를 끌어들여 일본에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결국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1904~1905) 승리와 포츠머스 조약 체결</li> </ul> <p>: 남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 병합(1910)</li> </ul>



## V 2 두 차례의 세계 대전

### 4 대공황과 전체주의

#### 01. 일본의 전체주의

<b>군국주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주 사변(1931) → 만주국 수립(1932) → ㉣□□ □□ 탈퇴(1933)</li> <li>중일 전쟁 도발(1937), 난징 대학살</li> <li>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3국 방공 협정 체결(㉤□□□□년)</li> </ul>
-------------	---

# V 1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 5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

### 01. 영국의 인도 침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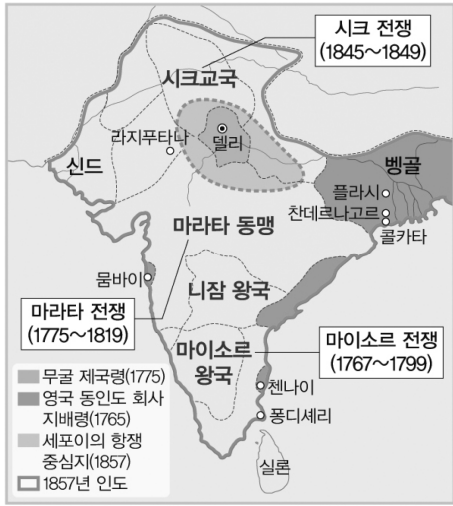
<b>배경</b>	• 빈번한 전쟁, 재정 파탄, 지방 세력의 반란 등으로 인한 무굴 제국의 쇠퇴
<b>과정</b>	• ①□□□ □□의 활동(1600~) • ②□□□ 전투(1757, 영국이 벵골·프랑스 연합군 격퇴) 후 벵골 지역의 통치권 장악

### 02. ③□□□의 항쟁(1857~1859)

<b>배경</b>	• 영국의 식민 통치와 착취, ③□□□(sepoys)의 반발
<b>전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의 항쟁(1857) → 영국의 무력 진압 → 무굴 제국 황제 폐위</li> <li>• ④□□ □□ □□□ 제정(1858) : ①□□□ □□의 인도 지배권 박탈</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 5px 0;">             세포이의 항쟁 이후 영국 정부가 ①□□□ □□의 인도 통치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위해 새로 제정한 법이다.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⑤□□□ □□ □□ 성립(1877) ↳ 영국 빅토리아 여왕(재위 1837~1901)이 인도 제국 황제 겸임</li> </ul>

### 03. 인도의 근대화 운동

<b>배경</b>	•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의 등장, 민족 자본가 성장	
<b>⑥□□□ □□□□ 운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28년 ⑦□ □□ □□ 중심</li> <li>• 순수 힌두교 교리로의 복귀 등 종교 운동으로 출발</li> <li>• 카스트제 반대·사회적 폐습 타파 주장 등 사회 개혁 운동으로 발전</li> </ul>	
<b>⑧□□ □□ □□</b>	<b>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이 인도인 회유를 위해 정치 조직 결성 지원</li> <li>• 지식인, 관리, 자본가, 지주 등으로 결성(1885)</li> </ul>
	<b>초기 활동</b>	• 영국에 협조하면서 인도인의 권익 확보에 주력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이 ⑨□□ □□□□ 발표(1905) : 서벵골(힌두교도 다수)과 동벵골(이슬람교도 다수)로 분리 통치 :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대립 조장 : 인도인을 분열시키고 민족 운동을 약화 시도</li> </ul>
	<b>전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톨라크 등이 주도한 ⑩□□□□ 대회 개최(1906) : ⑪□□□□(자치), ⑫□□□□(국산품 애용), 영국 상품 불매, 국민 교육 진흥의 4대 강령 채택</li> <li>• 영국이 전 인도 이슬람교도 연맹을 후원하여 ⑬□□ □□ □□와 대립 조장</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 5px 0;">             톨라크(1856~1920)는 인도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며 언론인으로, 푸나의 사립 학교에서 교육자로 활동하면서 20세기 초의 인도 민족 운동을 지도하였다. ⑨□□ □□□□이 발표된 이후 ⑩□□□□ 대회 개최를 주도하였고, ⑪□□□□를 강조하며 인도인을 결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div>
<b>결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⑭□□ □□□□ 취소(1911)</li> <li>• 명목상 인도인의 자치 인정</li> </ul>	



▲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인도인의 저항



▲ 9.

04.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

18.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짜끄리 왕조 라마 5세(쥘랄롱꼰, 재위 1868~1910)의 적극적 근대화 정책</li> <li>• 영국과 1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세력 사이의 완충 지대로 독립 유지</li> </ul>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보이쩌우(1867~1940)</li> <li>: 청년들을 일본에 유학 보내는 2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운동 전개</li> <li>: 신해혁명에 자극받아 중국 광둥에서 베트남 광복회 결성 → 2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에 대한 무력 투쟁 주도</li> </ul>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세 리살(1861~1896)</li> <li>: 『나에게 손대지 마라』 저술(2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의 가혹한 식민 통치 고발)</li> <li>: 2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인과 동등한 대우 요구</li> <li>: 필리핀 연맹(필리핀 민족 동맹) 결성(1892)</li> </ul>

● 동남아시아의 식민지화



# V 1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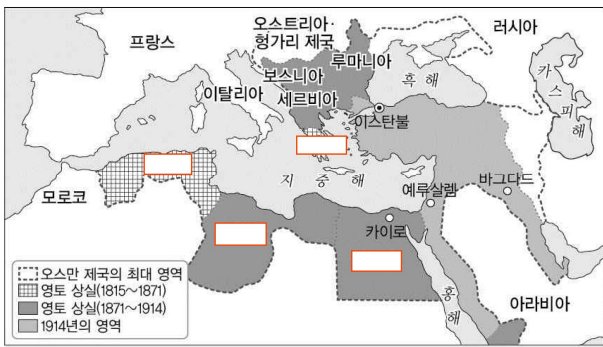
## 6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 01. 오스만 제국의 민족 운동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국의 쇠퇴</li> <li>①□□□의 독립(1829), ②□□□의 자치 허용(1829)</li> <li>영국, 러시아 등 열강의 압박</li> </ul>
<b>③□□□□ (1839~187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탄 압둘 메지트 1세(재위 1839~1861), 장미의 방 칙령(1839)</li> <li>행정, 사법, 군사 등 각 분야에 대한 근대적 제도 개혁 추진</li> <li>④□□□□ 파샤 주도로 근대적 헌법 제정(오스만 제국 헌법, 1876)</li> <li>자금과 전문 인력의 부족, 보수 세력의 반발, 외세의 간섭, ⑤□□□와 전쟁 등으로 개혁 성과 미흡 → 압둘 하미트 2세(재위 1876~1909)의 헌법 정지, 자유주의 탄압과 전제 정치 강화</li> </ul>
<b>⑥□□ □□□□의 활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교, 관료, 지식인 중심으로 결성(1889)</li> <li>무장봉기로 정권 장악(1908)</li> <li>1876년 헌법 부활, 여성 차별 철폐, 근대 시설 확장, 교육과 세제 개혁 추진</li> <li>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워 피지배 민족의 반발 초래</li> </ul>

### 02. 아랍, 이란의 민족 운동

<b>⑦□□□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1703~1792) 주도</li> <li>이슬람교 초기의 순수함을 회복할 것을 주장(『쿠란』으로 돌아가라.)</li> <li>아라비아반도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 빠르게 확산</li> <li>무함마드 이븐 사우드의 ⑧□□□ 왕국(제1차 사우디 왕국, 1774~1818) 건설</li> <li>⑨□□□ 제국에 의해 멸망 → 사우디 왕국으로 부활(1932)</li> </ul>
<b>이란의 민족 운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⑩□□□ 왕조(1779~1925)의 쇠퇴</li> <li>나시르 앳딘 샤푸(재위 1848~1896)</li> <li>⑪□□□, ⑫□□□의 침략 → ⑬□□□이 ⑭□□□ 독점권 획득(1890)</li> <li>이란의 상인·이슬람교 지도자 중심으로 ⑮□□□ 이권 수호 운동 전개(1891)</li> <li>입헌 혁명(1905~1908)과 헌법 제정(1906) → 개혁 실패 → ⑯□□□, ⑰□□□의 분할 협정(1912)</li> </ul>



### 03.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b>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함마드 알리(1769~1849)</li> <li>민중 봉기를 통해 총독 추대(1805) → 오스만 제국의 총독 승인 → 맘루크들을 제압하여 권력 강화</li> <li>근대화 정책 추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 획득(1829)</li> <li>⑲□□□ 레셉스의 운하 개설 특히 획득(1859) → 수에즈 운하 건설(1869)</li> <li>⑳□□□의 운하 경영권 차지(1875)와 내정 간섭 강화 → 아라비 파샤(1841~1911), ‘㉑□□□인을 위한 ㉒□□□ 건설’ 주장(1881) → ㉓□□□의 보호국으로 전략(1882)</li> </ul>
-------------	---

# V 2 두 차례의 세계 대전

## 1 제1차 세계 대전

### 01. 유럽 열강의 대립

<b>독일의 대외 정책 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스마르크(1815~1898) : 유럽의 현상 유지와 프랑스 고립화 추진</li> <li>: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67~1918), ①□□□□와 ②□□ □□ 체결(1882)</li> <li>• ③□□□ 2세(재위 1888~1918) : 대외 팽창 정책 → 베를린·비잔티움·바그다드 연결 추진(3B 정책), 모로코 사건(1905·1911)</li> </ul>
<b>영국의 제국주의 정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이로·케이프타운·콜카타 연결 추진(3C 정책)</li> <li>• ③□□□ 2세의 정책에 맞서 프랑스·④□□□와 ⑤□□ □□ 성립(1907)</li> </ul>
<b>민족주의 간 대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⑥□□ 지역에서 독일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후원(⑦□□□□주의) ↔ 러시아가 세르비아 후원(⑧□□□□주의)</li> </ul> <p>제1차 세계 대전 발발 이전에 독일인의 통합을 강조한 민족주의 사상 중 하나로, 독일 제국을 중심으로 모든 □□□□인의 단결과 생활권 확대를 추구하였다. 이는 ⑥□□□반도에서 ⑧□□□□주의와 충돌하여 제1차 세계 대전의 한 원인이 되었다.</p>
<b>⑥□□□ 전쟁 (1912~191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⑥□□□반도의 여러 민족이 ⑨□□□ 제국에 저항하여 독립하는 한편 영토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발생 → ⑥□□□반도의 민족주의 대립 심화</li> </ul> <p>세르비아 등 ⑥□□□ 동맹국들은 제1차 ⑥□□□ 전쟁을 일으켜 ⑨□□□ 제국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후 영토 분할을 둘러싼 내분으로 제2차 ⑥□□□ 전쟁이 발발하였다.</p>

### 02.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

<b>⑩□□□□ 사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스니아의 ⑩□□□□를 방문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됨(1914. 6. 28.)</li> </ul>
<b>전쟁의 발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①□□□□에 선전 포고</li> <li>② 동맹국(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독일)과 협상국(영국, 프랑스, ④□□□)의 참전</li> <li>③ 독일 군함의 ⑨□□□ 입항 → 러시아 크림반도의 오데사 항구와 세바스토폴 항구 공격(1914. 10월) → ⑨□□□ 제국의 동맹국 가담(1914. 11월)</li> <li>④ 동맹국이던 ①□□□□는 협상국(연합국) 측에 가담(1915)</li> </ol>
<b>독일군의 진격 (슐리펜 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⑬□□□ 침공(1914), 프랑스로 진격 → 마른 전투(1914), 솜 전투(1916) 등 →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짐 → 참호전 전개</li> </ul>
<b>전세의 변화</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영국 해군의 북해 봉쇄 → 독일의 ⑮□□□ □□□ 작전 전개</li> <li>② 치머만 전보 사건(1917. 1월) → ⑬□□□의 참전(1917. 4월)</li> <li>③ ④□□□ 혁명 발생(1917) → ④□□□는 독일 등 동맹국과 단독 강화를 체결하여 전쟁 이탈(1918)</li> </ol> <p>독일은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영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영국과 서유럽으로 향하는 연합국과 중립국 선박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작전은 ⑬□□□이 참전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p> <p>독일 제국은 법이나 인도주의의 제약을 무시한 채, 잠수함을 동원하여 영국과 아일랜드, 유럽 서부 해안 또는 지중해에 있는 독일의 적들이 관할하는 항구에 접근하려는 모든 선박을 침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독일 잠수함의 전투 행위는 인류에 대한 전투 행위입니다. ⑬□□□ 선박이 침몰되고, ⑬□□□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립국의 선박과 국민도 똑같이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격렬한 시련과 희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위대한 평화로운 국민을 전쟁으로 이끄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 그러나 정의는 평화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p> <p>- 윌슨 대통령의 의회 연설문(1917) -</p>

<b>전쟁 종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맹국(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항복</li> <li>• 독일 킬 군항 해군들의 봉기를 시작으로 1918년 혁명 발생 → 독일 1919년 2세 망명, 공화국 선포</li> <li>• 연합국 측과 독일 임시 정부의 휴전 조약 체결(1918. 11.)</li> </ul>
<b>전쟁의 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력전(전후방 구분 없이 국가 전체의 인력과 자원 투입), 참호전, 신무기 등장(탱크, 전투기, 잠수함, 독가스 등)</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 독가스를 피해 방독면을 쓴 군인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참호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비행기를 만드는 여성 노동자들</p> </div> </div>

## 2 4월 혁명과 10월의 성립

### 01. 혁명 이전의 정세

<b>사회 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 계급 성장</li> <li>• 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 창당(1898) → 급진파인 1905년과 온건파인 멘셰비키로 분열(1903)</li> </ul>
<b>피의 일요일 사건 (190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5년 전쟁에서 열세, 차르의 전제 정치에 대한 불만 고조 → 시위 전개 → 무력 진압</li> <li>• 니콜라이 2세(재위 1894~1917)가 1905년(의회)의 입법권 보장 등 개혁 약속</li> </ul>

### 02. 1917년 혁명의 전개(1917)

<b>3월 혁명 (구력 2월 혁명)</b>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세계 대전의 장기화로 물자 부족, 거듭된 패전으로 사기 저하</li> </ul>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트로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병사 1917년 중심의 혁명 발생</li> <li>• 노동자, 농민, 병사의 대표가 구성한 평의회를 말한다. 의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민이 자발적으로 조직·운영하는 민중 권력 기관이다.</li> <li>• 니콜라이 2세 퇴위 → 1917년 10월(케렌스키) 수립</li> </ul>
<b>11월 혁명 (구력 10월 혁명)</b>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7년 10월의 전쟁 지속, 개혁 실패</li> </ul>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병사 1917년과 1917년 10월의 대립 → 레닌 중심의 1917년 혁명(전쟁 반대, 사회주의 지향) → 1917년 10월 타도, 1917년 11월 정부 수립</li> </ul>

### 03. 혁명 이후

<b>레닌의 통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단독 강화 조약(1918년 조약) 체결(1918)</li> <li>• 토지 분배 및 주요 산업 국유화 등 사회주의 개혁 시행</li> <li>• 1921년 정책[NEP, 1921]</li> <li>• 급격한 공산화에 따른 경제적 혼란 극복 목적, 자본주의적 요소 일부 도입</li> <li>•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곡물의 강제 징발을 폐지하고, 농업을 비롯한 소규모의 산업에서 개인의 소유와 경영을 허용하는 등 자본주의적 요소 일부를 도입하고자 하였다.</li> <li>•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1922년) 수립(1922)</li> <li>• 소비에트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주변의 소비에트 정부 통합</li> </ul>
<b>스탈린의 통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닌 사망(1924) 후 스탈린의 정권 장악(~1953)</li> <li>•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작(1928, 중공업 육성과 농업 집단화)</li> <li>• 독재 체제 강화(스탈린주의)</li> </ul>

### 3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 01. 25□□□□ 체제의 성립

<p>25□□□□ (1919~19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승국 대표들이 회의 주도</li> <li>• 워싱턴의 '평화 원칙 14개조'에 입각하여 진행</li> <li>• 전승국의 이익과 패전국에 대한 응징이 강하게 작용</li> </ul>
<p>24□□□□ 조약 (19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승국과 독일 간에 체결</li> <li>• 독일의 모든 식민지 상실, 알자스·로렌을 26□□□에 양도, 군비 축소, 배상금 지불 → 29□□□□ 체제 성립</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제45조 프랑스 북부 석탄광의 파괴에 대한 배상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독일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의 일부로서, 독일은 제48조에 정의된 자르 분지에 위치한 석탄광을 프랑스에 완전하고 절대적인 소유권과 함께 양도한다. 이 석탄광에 대한 프랑스의 채굴 및 이용 권리는 배타적이며, 어떠한 종류의 부채나 부담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다.</p> <p>제118조 본 조약에 의해 확정된 유럽 내 경계를 벗어난 영토에 대해서, 독일은 자국 또는 동맹국의 소유였던 모든 영토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특권을 그 기원이 무엇이든 간에 포기한다.</p> <p>제231조 독일과 그 동맹국의 침략으로 인해 전쟁이 초래되었기에 연합국의 국민이 입은 모든 손실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독일은 그 책임을 수용한다.</p> <p>제235조 연합국의 산업 및 경제를 즉시 복구시키기 위해 ..... 독일은 배상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금, 상품, 선박, 유가 증권 또는 기타 방식)과 분할 납부 조건에 따라 ..... 1921년 4월 까지 200억 금 마르크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p> </div>

#### 02.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

<p>27□□□□ 창설 (1920. 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한 기구</li> <li>• 미국의 불참, 독일·소련 제외(독일은 1926년, 소련은 1934년에 가입), 군사적 제재 수단 미비 등 한계</li> </ul>
<p>평화 유지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싱턴 회의(1921~1922) 등에서 군비 축소 논의</li> <li>• 28□□□□ 조약(1925, 런던), 켈로그·브리앙 조약(1928, 부전 조약, 파리) 체결</li> </ul>

#### 03. 전후 민주주의의 발전

<p>재정 붕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제국 →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바이마르 헌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공화국으로, 바이마르 헌법은 소유권의 사회적 의무성, 인간의 생존권 등을 명시하여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영향을 끼쳤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오스트리아 제1 공화국(1919~1934) 등</li> <li>• 오스만 제국 → 29□□□□ 공화국(1923~)</li> </ul>
<p>30□□ 선거권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와 여성의 참정권 확대</li> </ul>

# V 2 두 차례의 세계 대전

## 4 대공황과 전체주의

### 01. 대공황의 발생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차 세계 대전 후 과잉 생산과 투자, 전체적인 소비 시장 축소</li> </ul>
<b>전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증권 거래소의 주가 폭락(1929) → 전 세계로 대공황 확산</li> </ul> <p>뉴욕의 큰 은행들은 군소 규모로 전략하면서 돈을 잘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들은 계속 버틸 수 없었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증권과 채권 시가가 바닥까지 내려갔고,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그런 다음에는 전반적인 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것은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철강 공장들, 자동차 산업, 설탕 시장, 심지어 향신료 시장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사람들은 채무 지불 능력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백만장자조차도 하루아침에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 농부를 비롯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었던 소규모 은행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대다수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마침내 개입해서 상황을 떠맡았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적은 양의 면화만 심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죠. 그 결과 수많은 면화 도매업자들이 사라졌습니다.</p>
<b>영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통제 경제 정책 강화, ①□□ 경제의 형성, ②□□□□의 확산</li> </ul>

### 02. 대공황 극복을 위한 각국의 대응

<b>자유주의 진영</b>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루스벨트의 ③□□ 정책(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설립)</li> <li>농업 조정법 : 농업 생산 조절, 농민에게 보조금 지급</li> <li>전국 산업 부흥법 : 산업 부문의 생산 조절, 최저 가격과 노동 시간 규정</li> <li>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 국토 개발과 실업자 구제</li> <li>④□□□법(전국 노동 관계법, 1935) :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인정</li> <li>사회 보장 : 노인 연금, 실업자 수당 등</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타와 회의(1932), ⑤□□□ 블록 형성</li> </ul> <p>본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고 그 블록 밖에 대해서는 봉쇄적인 교역 정책을 취하는 체제를 말한다.</p>
	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민 전선 내각 수립, 프랑 블록 형성</li> </ul>
<b>②□□□□ 진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 대외 팽창 정책 추진</li> </ul>

### 03. ②□□□□의 등장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지상주의, 일당 독재, 군국주의, 팽창주의, 언론과 사상의 통제</li> </ul>
<b>이탈리아 파시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후 물가 폭등, 실업자 증가</li> <li>무솔리니가 파시스트당 결성 → 로마 진군(1922) → 일당 독재 체제 구축(대공황 이전)</li> <li>⑧□□□□ 침공(1922) → 국제 연맹 탈퇴(1922) → 알바니아 침공(1939)</li> </ul>
<b>독일 나치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사회 혼란</li> <li>총선에서 나치당 승리(1932) → 히틀러가 총리로 취임(1933), 국제 연맹 탈퇴(1933)</li> <li>히틀러가 총통으로 취임(1933) → 반유대 정책 추진, 재무장 선포(1933)</li> </ul>
<b>일본 군국주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주 사변(1931) → 만주국 수립(1932) → 국제 연맹 탈퇴(1933)</li> <li>중일 전쟁 도발(1937)과 난징 대학살</li> </ul>

5 제2차 세계 대전

01. 전쟁 전 유럽의 상황

9□□□ 내전	• 프랑코 군부 세력의 반란(19□□) → 독일, 이탈리아의 지원 → 프랑코 정권의 내전 종결 선언(19□□)
3국 10□□□□	• 11□□, 일본, 이탈리아의 체결(19□□)
11□□의 팽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인란트 점령(19□□), 오스트리아 병합(19□□),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 점령(19□□)</li> <li>• 12□□ □□□ 조약 체결(19□□. 8월)</li> </ul> <p>11□□과 12□□이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전에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 조약이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두 나라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서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 “조약 당사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그 제3국을 원조하지 않는다.” 등이다.</p>

02. 제2차 세계 대전의 전개

11□□의 침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침공(1939. 9월) → 영국과 프랑스가 대독 선언 포고 →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침략</li> <li>• 6□□□ 공격 : 파리 점령 → 15□□ 정부 수립(양리 페탱, 1940. 6월) : 드골의 16□□ 망명 → 망명 정부(자유 프랑스) 수립, 레지스탕스 운동 전개</li> <li>• 12□□ □□□ 조약을 파기하고 13□□ 영토로 진격(바르바로사 작전, 1941. 6월)</li> </ul>
이탈리아의 침략	• 17□□□, 북아프리카 침공(1940)
일본의 팽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동아 공영권 표방, 동남아시아 침략</li> <li>• 18□□, 19□□ 등이 자국 내 일본 자산 동결과 각종 원자재의 일본 수출 금지 → 일본이 20□□ 하와이의 21□□□□을 기습(태평양 전쟁 발발, 19□□. 12월)</li> </ul>
연합국의 반격과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의 23□□□□□ 해전 승리(19□□), 24□□□의 25□□□□□□□□ 전투(19□□. 8월~19□□. 2월) 승리</li> <li>• 이탈리아 항복(19□□. 9월) → 26□□□□ 상륙 작전(19□□) → 27□□□ 정부 붕괴(19□□. 8월)</li> <li>• 히틀러 사망(19□□. 4월) → 독일 항복(19□□. 5월)</li> <li>•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 → 일본 항복(전쟁 종결, 1945. 8월)</li> </ul>
전쟁 중 평화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 □□(1941. 8월)</li> </ul> <p>29□□□ 대통령과 30□□□ 정부를 대표하는 처칠 수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이 더 나은 세계의 미래를 기대하며 양국의 국가 정책에서 견지하고 있는 공통적인 몇 가지 원칙을 알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 셋째, 양국은 모든 민족이 그 속에서 영위할 정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또 강압적으로 빼앗겼던 주권과 자치 정부를 인민들이 다시 찾기를 원한다. …… 여섯째, 양국은 나치 폭정이 완전하게 멸망한 뒤에는, 모든 국가가 자기들 국경 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포와 궁핍에서 벗어나 자유 속에서 일생을 살 수 있도록 평화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 …… 여덟째, 양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폭력의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만일 자국 국경 밖으로 침략을 자행하려 하거나 자행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이 육·해·공군의 군비를 계속 사용한다면, 장래의 평화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은 광범위하고 영구적인 안보 시스템이 수립될 때까지 이러한 국가의 군축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이로 회담(1943), 31□□□ 회담(19□□□), 포츠담 회담(1945) 등</li> </ul> <p>19□□□년 2월 크립반도에 있는 □□□에서 열린 국제 회담으로 미국, 영국, 소련이 참여하였다. 회담의 주요 내용은 32□□□의 처리 문제와 33□□□의 대일 참전 결정 등이었다.</p>

03. 전후 처리

<b>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국과 패전국 간의 개별 조약 체결</li> </ul>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뉘른베르크 재판(1945~1946), 도쿄 재판(1946~1948) 등 전범 처벌을 위한 국제 군사 재판 개최</li> <li>• 18□□, 16□□, 프랑스, 15□□의 독일 분할 점령 → 독일의 동서 분단</li> <li>• 일본의 주권 회복(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19□□)</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과의 강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1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회의이다. 회의 결과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의 중립국화(1955)</li> </ul>

04. 국제 연합[UN]의 성립(1945. 10월)

<b>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 □□(1941. 8월) : 루스벨트와 처칠이 발표,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여 국제 연합 창립의 기초 마련</li> <li>• 샌프란시스코 회의(1945. 6월) : 국제 연합 헌장 채택 → 정식 출범(51개국 참가)</li> </ul>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가 총회의 결정보다 우선</li> <li>• 상임 이사국(미·영·프·소·중)의 2□□□ 행사(국가 이기주의 심화 부작용, 냉전 논리에 좌우됨)</li> <li>• 국제 연합군(유엔군)을 파견하여 국제 분쟁에 무력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됨</li> </ul>

# VI 1 냉전과 탈냉전

## 1 냉전 체제

### 01. 성립과 내용

<b>성립</b>	•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성립
<b>내용</b>	• 미국 중심의 ①□□□□ 진영과 소련 중심의 ②□□□□ 진영 간의 대립

### 02. 전개와 심화

	①□□□□ 진영	②□□□□ 진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 □□□ 발표(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유럽에 공산주의 세력 확대 ④□□□□(공산당 정보국, 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⑤□□ 계획 발표(19□□)</li> <li>• 독일 내 관할 지역에 새로운 통화 제도 도입</li> <li>• ⑧□□□□ 조약 기구[NATO] 결성(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⑥□□□(경제 상호 원조 회의, 19□□)</li> <li>• ⑦□□□ 봉쇄(19□□~19□□)</li> <li>• ⑨□□□□ 조약 기구[WTO] 결성(19□□)</li> </ul>
<b>전개</b>	<p>미국 대통령 ⑤□□□이 발표한 외교 정책으로, ⑩□□□□와 튀르키예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원조 계획과 함께 ①□□□□ 진영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p>	
	<p>19□□년에 미국의 국무장관 ⑤□□이 발표한 유럽에 대한 경제 지원 계획으로, 서유럽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다.</p>	
	<p>조약 당사국들은 파리 협약의 비준으로 유럽에 초래된 상황에 유감을 표명한다. 그 협약은 '서유럽 연합' 형태의 새로운 군사 동맹의 등장을 예고하며, 서독의 재무장 및 ③□□□□ 블록에 서독이 통합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은 또 다른 전쟁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평화를 원하는 국가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조약 당사국들은 평화를 원하는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유럽 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p> <p>제4조 어느 국가 또는 국가들의 집단에 의해 조약 당사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유럽에서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조약 당사국들은 국제 연합 헌장 제51조에 따라 개별, 혹은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조약 당사국과 연합하여 무력을 포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격받는 국가나 국가들을 즉시 지원한다. ……</p> <p>제5조 조약 당사국은 합의에 따라 지휘권이 양도된 군 연합사령부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공동으로 제정된 원칙에 기초해 기능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들 인민들의 평화적 노동을 보호하고 국경과 영토의 불가침성을 보장하며 침략에 대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방어력 강화에 필요한 합의된 조치들을 채택할 것이다.</p>	
<b>심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 전쟁, ⑦□□□ 장벽 설치(19□□), 쿠바 미사일 위기(19□□,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설치 시도에 미국이 쿠바 봉쇄로 대응하여 갈등 심화), 베트남 전쟁 등</li> </ul>	

## 2 제3 세계의 성립

### 01. 등장

<b>참가국</b>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
<b>기치</b>	•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①□□□ □□□□와 독자 노선 표방

02. 발전

<b>평화 5원칙</b>	•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언라이가 발표(19□□)
<b>평화 10원칙</b>	•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회의)에서 발표(19□□)
<b>제1차 비동맹 회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 세계의 협력과 결속 강화 선언(19□□)</li> </ul> <p>유고슬라비아 □□□□에서 개최된 회의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 등이 참석하여 미국과 소련 양 진영에 속하지 않는 비동맹 국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p>

3 냉전의 해체

01. 냉전의 완화

<b>배경</b>	• 미국과 소련 사이에 긴장 완화 분위기 조성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련 : 서독과 국교 회복(1955), ●□□□□의 평화 공존 추구(1956)</li> <li>• 미국 : ●□□ □□□ 발표(19□□), 소련과 전략 무기 제한 협정[SALT] 체결(제1차, 19□□), 베트남 전쟁에서 군대 철수(19□□), 중국과 국교 수립(19□□)</li> </ul> <p>1969년에 미국 대통령 ●□□이 팜에서 발표한 외교 정책으로, 미국이 앞으로 직접적인 대외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고,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의 힘으로 한다는 등의 원칙을 담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 정책 추진(1969~1974)을 통해 동독 및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의 본격적 관계 개선 노력</li> <li>• 중국과 소련의 이념 대립 시작(1956)</li> </ul>

02. 소련의 변화와 해체

<b>16 □□□□□□의 정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당 관료 체제의 강화, 통제 경제 체제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경제 침체</li> <li>•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대 서기장으로 취임(19□□)</li> <li>• 페레스트로이카(개혁), 글라스노스트(개방) 표방</li> </ul> <p>: 시장 경제 요소 일부 도입, 미국 및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몰타 회담(19□□)], 언론 통제 완화 등</p> <p>부시 : 이번 몰타 회담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저는 페레스트로이카가 성공한다면 세계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 하지만 진지한 미국인들은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미국 여론의 변화는 동유럽의 변화와 페레스트로이카의 전 과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분석가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당신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p> <p>●□□□□□ : 대통령님, 먼저 저는 몇 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련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워낙 중요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 소련은 더 이상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국가들에 대한 불간섭 선언(1989)</li> </ul>
<b>소련의 붕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 주도로 ●□□ □□ □□[ CIS ] 출범 → 소련의 해체(19□□)</li> </ul> <p>●□□(1931~2007)은 1991년에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의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파의 쿠데타가 발생하자 이를 저지하였다. 이후 ●□□□□□의 미온적인 개혁을 비판하며 ●□□ □□ □□[ CIS ] 결성 및 소련 해체를 주도하였다.</p>

### 03. 독일의 통일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독 간 경제 성장 격차 심화</li> <li>• 동·서독 교류, 동독의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시위 발생</li> </ul>
<b>통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독 헬무트 콜 총리(재임 1982~1998)</li> <li>• 동독 서기장과 정상 회담(1987), 통행 자유화 조치(1989), ⑦□□□ 장벽 붕괴(19□□. 11월)</li> <li>• 동독 자유 총선거(19□□) → 동독이 독일 연방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일(19□□)</li> </ul>

### 04. 동유럽 공산주의권의 붕괴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 및 정치적 간섭 약화</li> </ul>
<b>붕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⑩□□□□</li> <li>• 자유 노조 운동을 이끈 ⑪□□□□가 1989년 총선거에서 승리, 이후 대통령 당선(1990)</li> <li>• ⑫□□□□는 전기공 출신으로, 노조 지도자로 활동하며 자유 노조 운동을 이끌었다.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⑬□□□□의 민주주의 운동을 이끌어 198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1989년 총선거에서 자유 노조 '연대(솔리다르노시치)'의 승리를 이끌었으며 다음 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li> <li>• ⑭□□□□</li> <li>• : 다당제, 시장 경제 제도 도입</li> <li>• 유고슬라비아(19□□~1929~19□□)</li> <li>• : 독자적인 사회주의 노선 표방, 연방 해체와 분리 독립</li> <li>• 체코슬로바키아(19□□~19□□)</li> <li>• : 하벨 주도의 민주화 운동(벨벳 혁명) 전개 → 하벨의 대통령 당선(19□□)</li> <li>• : 연방 해체 → 하벨의 체코 초대 대통령 당선(19□□)</li> </ul>

## 4 탈냉전 시대의 분쟁과 세계 질서의 재편

### 01. 탈냉전 시대의 분쟁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종교·영토·인종 등 다양한 원인이 뒤얽혀 갈등 고조</li> </ul>
<b>사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⑮□□□□ 분쟁(파키스탄과 인도의 대립)</li> <li>• 구유고슬라비아 지역의 내전</li> <li>• 아프리카 등지에서 분쟁(르완다의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내전)</li> <li>• 팔레스타인 분쟁</li> <li>• 19□□년에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을 건국하면서, 이들과 기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아랍인들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여러 차례 전쟁으로 이어졌다.</li> <li>• 체첸과 러시아의 분쟁(체첸의 분리 독립 선언, 1991)</li> </ul>

### 02. 세계 질서의 재편과 지역화

<b>재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⑯□□□□□ 회의(19□□)</li> <li>• : 미국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결정,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과 국제 통화 기금(IMF) 창설</li> <li>•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체결(19□□)</li> </ul>
<b>지역별 경제 공동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19□□),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19□□), 북미 자유 무역 협정(19□□)</li> <li>• ⑰□□□□(EU, 19□□)</li> <li>• :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19□□), 유럽 경제 공동체(EEC, 19□□), 유럽 공동체(EC, 19□□)</li> <li>• : 유럽 공동체 소속 국가들이 ⑱□□□□□□ 조약 체결(19□□)</li> <li>• → 공동 외교와 안보 정책, 유럽 단일 통화 등을 결의하고 정식 출범</li> </ul>

# VI 2 21세기의 세계

## 1 세계화와 과학 기술 혁명

### 01. 세계화 촉진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0년대 두 차례의 ❶□□ 파동</li> </ul>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❷□□□□□의 등장과 확산 : 대처리즘[영국 대처 총리(재임 1979~1990)], 레이거노믹스[미국 레이건 대통령(재임 1981~1989)] : 복지 비용의 지출 축소, 각종 규제 철폐, 소득세 인하 등 작은 정부 지향</li> </ul> <p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사태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위기입니다. 국유화와 국가 통제가 자국의 경제와 사회생활을 지배한다면 어떤 나라도 번영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자유 경제가 우리의 자유로운 권리들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라 전체의 부와 번영을 창출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기에 자유 경제를 원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마거릿 대처의 영국 보수당 전당 대회 연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❸□□ □□ □□[WTO] 창설</li> </ul> <p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1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 무역 확대와 통상분쟁 해결 등의 역할을 하고 자유 무역 질서 확대를 추구한다.</p>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 활성화</li> </ul>

### 02. 과학 기술 혁명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자 역학 발전, 유전 공학의 발달</li> <li>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인터넷과 무선통신 발달, 휴대 전화의 확산)</li> <li>인공 지능[AI]의 진화</li> </ul>
-----------	---

## 2 21세기 인류의 과제

<b>빈부 격차 심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❹□□□□□와 세계화 확산으로 인한 국가 간 빈부 격차 심화(❹□□□□ 등)</li> </ul>
<b>차별과 갈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편견과 차별</li> <li>종교, 피부색 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li> </ul>
<b>에너지·환경 문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및 에너지 고갈</li> <li>지구 온난화와 사막화 현상</li> </ul>
<b>전염병 확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종 질병 출현</li> </ul>

**MEMO**

---

